

작은도서관 구성 운영 사례집



작은도서관 구성 / 운영 사례집

발행일 2013. 12. 20
발 행 문화체육관광부
제 작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13
T 02. 515. 1178
www.smalllibrary.or.kr

디자인 아이디어스푼 **T** 02. 2277. 6206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2-1371510-000005-01
ISBN 978-89-7820-623-5 13020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인용, 발췌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006	들어가는 말
	012	협동조합형 작은도서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028	협동조합연계 작은도서관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038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050	풀뿌리 시민단체 협력 작은도서관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
	058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064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078	운영위원회 중심 작은도서관 여우네도서관
	084	뒤뚜르 어린이도서관
	092	마을이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
	108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118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굿모닝도서관
	124	봄싹도서관
	130	팔판 작은도서관
	138	작은도서관에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성장한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150	맨발동무도서관
	164	기타 도서관 고맙습니다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170	달리도서관





SMALL LIBRARY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민간운동에서 시작되어 정책적 차원으로 발전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 방법을 찾아보고
도서관 운영 정보를
다함께 공유하고자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민간운동에서 시작되어 정책적 차원으로 발전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을 기치로 출발한 마을문고는 1970년대 관치조직으로 전환되어 새마을문고로 발전하였고, 1980년대에는 노동근로자 및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도서관'과 '지역주민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었다. 1990년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며 '종교시설 문고'가 확대되었고, 어린이도서관연구회로 시작된 어린이독서운동이 어린이전문도서관 설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며 2004년 문화관광부의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 21:문화비전'에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이 제시된 이래, 복권기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시범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국가 정책차원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도 시작되었다.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민·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2009년에는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이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 문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름만 '작은도서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며 시설기준은 건물 면적 33㎡, 열람석 6석, 보유 장서 1,000권 이상인 도서관을 가리킨다. 이후 작

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면서 2012년 2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른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3,951개로 이는 2010년의 3,349개와 비교했을 때 600여개가 더 늘어난 수치다. '작은도서관진흥법'제정을 계기로 작은도서관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4,000개 가까운 작은도서관이 싹틔줄처럼 전국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런 수치가 마냥 즐거운 일만도 아니다.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는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지만 운영 면에서는 아직 만족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0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전체 3,349개 도서관 중에서 36%가 운영상태의 개선을 요하는 C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작은도서관 전체 비중의 80%에 이르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42%가 인력과 장서,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도서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 방법을 찾아보고 도서관 운영 정보를 다함께 공유하고자 제작되었다. 도서관사례는 민간에서 조성한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이 조성, 운영하는 도서관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조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마을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도서관, 최근에 각 분야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협동조합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협력한 도서관 등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하여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성장한 도서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등의 운영 사례를 더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익구조가 없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민들의 십시일반 후원금과 지자체 등의 비정기 지원금을 통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은도서관이 유지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작은도서관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이나 회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삶에 있어 그만큼 소중한곳이라는 반증일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묵묵

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사서를 채용한 도서관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들의 손을 거쳐 나오는 프로그램은 어르거나 아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기획들이 많다. 대출·반납 기능에 머물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끌어안고자 하는 노력들이 담겨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여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문화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 이용대상, 운영 장소,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생각하고 막연히 시작하기보다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살펴보면 조성 단계부터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도서관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였고, 도서관학교를 열어 도서관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열정적인 전임운영자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해 적절한 도서관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서관과 호흡하며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지역민들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소중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여기며 기꺼이 돈을 기부하고 재능과 시간을 투자해 도서관을 함께 가꿔나가고 있는 현상이 많다.

작은도서관은 단지 규모가 작은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책을 통해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철학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이번 사례집 작업을 통해 절실히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4,0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이름뿐인 도서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된 도서관서비스를 시행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의 도서관문화는 한층 발전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들의 자발적인 운영 노력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이나 지자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지자체, 정부가 마음을 열고 작은도서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 뿐씨가 될 이번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이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장과,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적절히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Part 01

협동조합형 작은도서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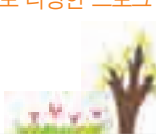
협동조합형 작은도서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다. 최초 열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 출자금 을 모아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였고 조합원 중 1명이 관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지만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공동체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함께 누리며 확산해 나가고자 동네카페&극장 '동굴'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다. 최초 열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 출자금을 모아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였고 조합원 중 1명이 관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지만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공동체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함께 누리며 확산해 나가고자 동네카페&극장 '동굴'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 · 규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2
세신훼미리타운 603, 604, 610호
031-972-5444
면적: 134.81㎡
장서 수: 8,000권
cafe.daum.net/funnytree

운영현황

개관: 2009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재미있는 느티나무온가족
도서관 생활협동조합
운영인원: 28명
회원 수: 500명
일평균이용인원: 25명
운영시간
월~금 오전 10:30~18:30
토요일 오전 10:30~15:00

1. 조성과정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 위치한 경기도 덕양구 행신동 일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초록의 자연환경을 금방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도시와 농촌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섞어놓은 듯한 풍경,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 그 중심에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열 가구가 모여 만든 마을조합 도서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도서대여점에 뿌리를 두고 탄생했다. 동네에서 10여 년 동안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운영자가 귀농하면서 도서대여점이 매물로 나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심점 공간으로 활용코자 도서대여점을 인수하게 되었다. 도서관을 만들어보겠다고 팔을 걷고 나선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 열 가구였다. 10여 년 전부터 공동육아공동체교육 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운 사람,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후 알게 된 저학년 방과후 협동조합 사람들, 고학년 방과후 협동조합에서 만난 사람들, 그 밖에 동네에서 만나 인연이 된 사람, 여기에 '도서관'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이웃마을 주민까지 구성원들의 이력은 다양했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여타의 도서관과 달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2009년 열 가기로 출발한 조합 구성원은 그 동안 두 가구가 이사 등의 개인 사정으로 탈퇴하고 여섯 가구가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열네 가구가 활동 중이다. 조합 구성 당시 권리금과 보증금, 시설확충비 등 기존 가게 인수 비용은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출자금을 통해 해결했다. 열 가구가 150만 원 씩 출자한 1,500만 원이 초기 자본금이었다. 노동이 필요한 일은 조합원들이 모여 품을 나누었다. 도서관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이익 때문에 모인 협동조합과는 달리 가치를 공동소유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가치를 소유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운영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이들 공간마련이라는 단순한 씨앗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동네 작은도서관이라는 나눔 공간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기존의 도서대여점을 인수하면서 공간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크기가 9평밖에 되지 않아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인 10평에는 못 미쳤다. 9평짜리 공간 하나를 두고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사용했지만 도서관이 주민들로 북적거리게 되면서 공간을 넓히는 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조합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듬해 ‘도서관 1평 더 만들기’ 잔치를 열었다. 도서관의 현안 문제를 이웃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기존 도서관 옆에 나란히 붙은 8평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처음 만든 9평 공간에는 어린이들이 배를 깔고 뒹굴며 책을 볼 수 있도록 얇은뱅이책상을 놓았고 두 번째 만든 8평 공간은 청소년과 어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책, 사람, 가족, 이웃, 동네…… 동네를 굴러라!

운영 2년차로 접어들면서 조합원들이 화두로 삼았던 것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었다. ‘책’이라는 주제는 똑같은데 두 공간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고양시 행신동의 경우 주변에 공공도서관 및 공공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의 대여와 반납에 머문다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의 길을 찾았다. ‘책’과 ‘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가족’과 ‘이웃’이 모

1.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전경
2. 아이들이 그린
도서관지도 주변 마을지도

동굴 개관식 장면



여 어울리기 시작하자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네’였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공동체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함께 누리며 확산해 가는 것을 중요한 존재 이유로 삼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한 지 3년이 되던 해 고양시에서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자치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도 2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그 결과 태어난 사업이 동네카페&극장 ‘동굴-동네를 굴러라’였다. 도서관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붙어 있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동네카페&극장, 일명 ‘동굴프로젝트’는 고양시로부터 도시 공동체 복원의 좋은 본보기라며 프로그램 진행비를 지원 받았다. 지원 자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굴-동네를 굴러라’를 통해 계발되었고 도서관은 한 발 더 지역주민들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 강좌, 그림책 작가와의 놀이, 친구마을 만들기, 가족 앨범 만들어 전시하기, 그림책을 판소리로 엮어 공연하기, 송편 빚기, 전래 놀이, 동네 회갑연, 하소연 콘서트, 동네달력 만들기 등의 행사가 ‘동굴’을 무대로 펼쳐진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시간에는 동굴이 동네 주민들로 북적인다. 입소문을 타면서 문을 굳게 잠갔던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결과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공간추가에 따른 임대료와 보증금, 기존 시설 철거비, 공간관리비 등의 비용은 이번에도 조합원들이 각출해 분담했다. 조합원들은 자원봉사로 운영의 일부까지 기꺼이 떠맡고 있다. 조합원들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혼자만 잘 살지 않기’ 위해서다. 무너져 가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 끌어안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 책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삶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일상을 엮고 풀어낼 수 있는 동네사랑방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고민이, 조합원들의 작은 노력 속에 올올이 숨어 있는 것이다.

1. 몸살림 건강교실 :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강한 몸을 위한 몸살림 운동강좌

기간 : 9월 3일~10월 17일까지 총 12회 특강
시간 :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2회, 10시~11시 30분
인원 : 15명~20명(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2. 필라테스 건강교실 :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통증 치료를 위한 운동강좌

기간 : 9월 4일~10월 11일, 총 12회 특강
시간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10시~11시 30분
인원 : 15명 내외(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3. 전래놀이 교실 : 한가위 명절을 맞아 우리의 전통놀이를 배우며 신나게 놀기

날짜 : 9월 6일~9월 27일까지, 주1회씩 총 4회 강의
시간 : 매주 목요일 4시~5시 30분
대상 : 어린이(6~7세 어린이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개설합니다.)

4. 동네 동아리 발표 잔치-어린이, 청소년, 엄마아빠의 음악 및 뮤지컬 발표회

날짜 : 9월 8일 토요일 4시
내용 : 어린이 동아리 2모둠 발표('해와 달이 된 오누이' 외) 어른 동아리 1모둠 발표('맘마미야'), 어른 음악동아리

5. 송편잔치 : 한가위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송편을 빚어 먹으며 정 나누기

날짜 : 9월 22일 토요일 10시
대상 : 동네 사람 누구나

6. 작가와 만나는 동네특강 : 어린이 책 작가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도 듣고 신나는 놀이도 하고

날짜 : 9월 8일 토요일 10시
주제 : 나는 괴물이다의 최덕규 작가
활동 : 괴물가면 만들기 및 놀이

7. 동굴 속 인문학교실 :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교실, 작가와 함께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장

날짜 : 9월 15일 토요일 3시
내용 : '사진아, 시가 되라!'의 주상태 작가

동굴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
(2013년 9월 기준)



동아리 발표회



협동조합의 꽃은 사람이다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는 사람에 달려 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북적거리며 조합을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차게 협동과 봉사를 통해 이웃과 삶을 나누느냐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갈린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평생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권리보다는 책임이 더 따르는 구조다. 사회적 기업처럼 이익이 되는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나누지도 않으며 도서관이 늘 적자인 탓에 조합원의 운영비 지출도 잦다. 그러나 조합원이라면 누구도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삶, 경쟁이 아닌 나눔을 위한 삶, 모두 똑같은 모양이 아닌 서로 색다른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 도서관의 나아갈 길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라 공동체 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과 이웃을 별개의 집단으로 여긴다. 이들의 관계를 엮는 공간, 즉 개인과 이웃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작은도서관과 같은 마을 공동체 시설들이다. 공동체의 가장 큰 자산은 개개인의 경험이다. 아이를 키우며 경험했던 육아노하우, 입시생을 길러낸 엄마의 조언, 지역의 옛 이야기들을 한

보따리 풀어놓을 수 있는 어르신, 이 모든 것이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의 자산이다. 공동체 문화 안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며 가치 있는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하여 고민한다.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만 매달려야 하는 어른들도 도서관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 그 매개체가 바로 ‘책’이다.

2. 운영사례

성인과 청소년 봉사자들의 적절한 인력 조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조합원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된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협동조합 안에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관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여 4년 동안 활동하였고 조직 개편 등을 거쳐 현재는 운영위원이 17명으로 증원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과 시설보수 및 관리, 재정과 홍보 등을 책임지며, 지역연대위원회는 별도로 6명을 두어 지역연대와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외에도 조합원친목위원회에 5명을 두어 조합원 간 친밀감 유지활동을 전개한다. 조합원은 모두 무급으로 봉사하며 전담운영자인 관장에 한하여 최소한의 활동비를 조합비로 지출한다. 별도 사서는 두지 않으며 가끔 순회사서를 지원받기도 한다. 도서관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꾸리며 자원봉사자는 성인 10명, 청소년 2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 서가 정리 및 대청소, 도서관 행사 진행 보조 등의 활동을 한다. 자원봉사자는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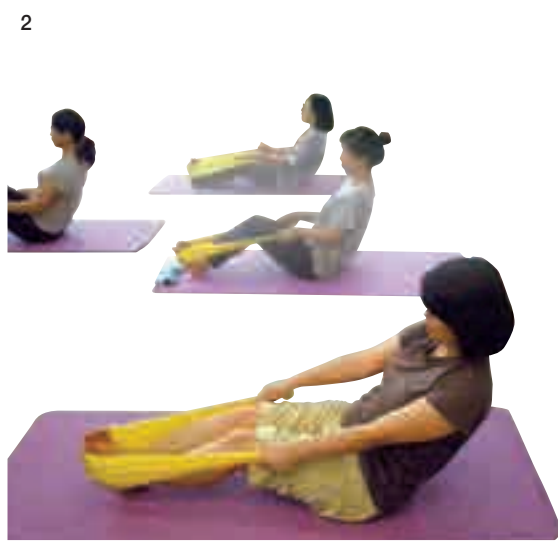
운영인력	구성	역할	유·무급 여부
운영위원회	청소년지원	· 도서관 운영	관장 1인 외
	시설관리	· 도서관 시설보수 및 관리	조합원 모두
	재정 및 홍보	· 도서관 재정과 홍보	무급(외부보조인력 1인 유급)
지역연대위원회	6명	지역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조합원 친목위원회	5명	조합원 간 친밀감 유지 활동	

장서 구입의 경우 고양시와 경기도의 지원 아래 연간 도서구입비로 3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장서는 도서관 운영위원 중 도서 선정위원이 선정하며 도서관 이용자의 추천을 받기도 한다. 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어른과 어린이가 비슷하며 오전에는 주로 엄마들이 이용한다. 학교가 끝나는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다수 찾아오며 주말에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반가워한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도서관 이용을 조합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던 주민들도 도서관이 동네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나아가 조합원들이 무보수로 일하며 운영 일체를 책임진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조합이 아니라 운영하기 위한 조합이라는 사실이 도서관을 찾는 동네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정신, 이웃과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이와 청소년, 어른들을 아우르는 신바람 프로그램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의 목적은 책을 매개로 도시 공동체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이 함께 누리며 이를 확산해 나가는 데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독서와 연계된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책을 읽지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하게 만든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의 프로그램은 크게 어린이, 청소년,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자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외부 연계 프로그램은 2012년 고양시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동굴’에서 주로 활동이 펼쳐진다.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재미있는 책읽기’, ‘생각하며 책읽기’, ‘북아트교실’, ‘통합책교실’, ‘역사책교실’, ‘화요일의 과학자’, ‘내 마음을 그려봐’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등이 있다. ‘재미있는 책읽기’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강좌이며 ‘생각하는 책읽기’는 고학년들이 책을 읽고 수다와 섞어 자기 생각을 토론하는 자리다. ‘역사책교실’에선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이 이어지며 ‘통합책교실’은 북아트와 신문을 활용한 수업과 미디어를 활용한 책읽기를 통합한 강좌다. ‘화요일의 과학자’는 과학책과 연계하여 생활 속에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



는 시간이며 ‘내 마음을 그려봐’는 예술 관련 책 중에서 특히 미술 관련 활동을 펼치는 시간이다. ‘박물관 · 미술관 나들이’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획 전시를 보러 나들이를 가는 시간이다. 이외에도 동네 숲, 동네 아파트 화단, 동네 가로수 길 등에서 진행되는 ‘생태나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떠나는 ‘역사나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산골마을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친구마을만들기’, ‘들살이 여행’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문학 작품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문학교실’, 인문학, 철학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교실’, 고양청소년창의센터 기획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양청소년창의센터 강좌는 ‘십오소년 도서관 표류기’라는 부제로 여러 차례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찾아가보는 나들이 강좌 ‘십오소년 도서관 표류기1-세계와 나’, 미디어를 통한 자기 정체성 및 진로 찾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 미디어 활용 프로젝트 강좌 ‘십오소년 도서관 표류기2-미디어를 활용한 나 찾기’, 자기 몸을 직접 알아보는 청소년 성교육 강좌인 ‘십오소년 도서관 표류기3-내 몸의 주인은 나’ 등도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다이어리’, 졸업 앨범 등 다양한 북아트 작품 만들기 강좌인 ‘북아트 교실’, 학창시절 어려웠던 수학을 인문학과 철학으로 접근하여 재미있게 익히는 수학 공부 모임인 ‘수상한 수

1. 도서관 프로그램 포스터

2. 필라테스 강좌



3. 예술비빔밥 공연관람

4. 겨울 들살이 여행



학교실’, 시 쓰기, 인문학 강의 등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한 강좌인 ‘인문학교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사진강좌’ 등이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풍성한 연중행사들

이외에도 도서관 전체 프로그램으로 동네 봄 잔치-동네북콘서트, 가을 잔치-동네 동아리 발표회, 고양파주 공동육아 대안 교육마당, 하소연콘서트-동네 송년회 등의 행사가 열린다. ‘동네북콘서트’로 열리는 봄 잔치는 한 해를 열고 봄을 맞이하는 잔치이며 도서관 개관 잔치를 겸한 동네 행사로 동네 동아리들의 뮤지컬 공연, 기타 공연, 밴드 공연, 글 낭송회, 판소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동아리 발표회를 겸한 ‘동네 가을잔치’는 가을걷이를 기념하는 잔치로 동네 동아리들의 기량을 한데 모아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풍성한 가을 축제다. ‘고양 파주 공동육아 대안 교육한마당’은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다지는 큰 축제이다. 이 축제에서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엄마들 가운데 인형극을 할 자원자를 모집하여 인형극을 공연한다. ‘하소연콘서트’는 겨울 송년회를 겸한 동네 잔치로 한 해의 크고 작은 님두리를 누구나 자유롭게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외부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2년의 경우 경기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사진과 시가 어우러지는 ‘사진아~ 시가 되어라’라는 강좌를 개설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사진 강좌와 동네탐방 사진 찍기, 북아트 강좌와 뮤지컬 강좌, 뮤지컬 공연, 사진 전시, 동네 달력 제작 및 배포 등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고양 아쭈마들의 ‘예술비빔밥’ 행사도 인기리에 열린다. 온 가족이 참여하는 ‘동굴-동네를 굴러라’에서는 북아트로 가족 앨범 만들기과 우리 동네 생태지도 만들기, 송편빚기, 전래놀이, 동네 회갑연, 몸살림 교실, 필라테스 교실, 작가와 함께 놀아요, 인문학교실, 청소년 잔치, 동네 동아리발표회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 이외에도 문화예술단체 ‘아트엔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토요일과후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캘리그래피’를 진행하며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미디어 활용수업(나의 적성 찾기)’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자매결연 도서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다. 2011년 강원도 인제에 있는 산골마을 작은도서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방학 때마다 농촌으로 문화체험 여행을 떠난다. 도시 아이들과 농촌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금방 친구가 되는 장면은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 계속해서 존속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원도 자매결연도서관이 있는 동네에서 재배한 시골의 농작물들을 도시의 작은도서관을 통해 도시 가정의 부엌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산골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도시의 식탁이 지금보다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 재정마련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은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조합비 이외에도 후원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후원회원은 연간후원회원, 6개월 후원회원, 월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되며 후원회원 모집은 행사 때 홍보와 온라인카페에서 모집 글을 통해 모집한다. 후원금은 후원회원이 직접 후원계좌로 입금하거나 도서관에 직접 건네기도 하며 직접 후원자의 경우 월 후원비를 모아 후원계좌로 이체한다. 조합 조직표

재정운영 내역(2013년 상반기 기준)

총수익	3,410,000원	총지출	3,830,000원
조합원 운영회비	1,400,000원	월세	1,300,000원
강사 후원비	1,170,000원	급여	1,400,000원
후원회원 후원비	370,000원	관리비	500,000원
공간나눔 후원비	470,000원	사무기기임대비	100,000원
		소모품 지출	200,000원
		도서구입비	330,000원

에 회계 담당조합원을 두어 회계담당 조합원이 후원금을 관리하는 구조다. 후원금의 보고는 1년 2차례 조합원 총회에서 결산하고 보고된다. 이외에도 고양시와 경기도 등으로 부터 프로그램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 등을 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원 받고 있기도 하다.

4. 기타

도서관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012년에는 ‘동굴-동네를 굴러라’라는 잡지를 펴내 도서관 소식과 동네 소식을 함께 실었으나 금년에는 예산 문제로 잠시 휴간 중에 있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공간 재배치 문제다.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특히 2012년 ‘동굴’카페&극장이 생긴 후로는 행사 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공간이 비좁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현명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 공동체의 희망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발자취

- 2009년 1월 5일 개관, 2월 14일 개관식 진행
- 2009년 9월 고양여성회 체험기획팀과 결연 맺어 체험학습 공동 진행

- 2009년 11월 '고양파주 공동육아 대안교육한마당' 참가
- 2010년 3월 도서관 개관기념 잔치
- 2010년 6월 19일 '도서관 1평 만들기' 동네잔치
- 2010년 5월 '고양청소년창의센터' 추진위 공동결성
- 2010년 11월 '고양파주 공동육아 대안교육한마당' 행사 참가
- 2010년 12월 '도서관 겨울들살이 여행'
- 2011년 6월 7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 2011년 8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활용교육 지원사업 진행
- 2011년 9월 10일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의 날' 진행
- 2011년 9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평화도서관'과 자매결연 맺음
- 2011년 11월 '고양파주 공동육아 대안교육한마당' 참가
- 2011년 12월 '도서관 겨울들살이 여행'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평화도서관'에서 진행
- 2011년 12월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인형극 '어처구니 이야기' 공연
- 2011년 12월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평화책 전시회' 진행
- 2012년 3월 도서관 개관기념 잔치 '행신동 동네북 콘서트' 진행
- 2012년 4월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고양아줌마들의 예술비빔밥' 선정
- 2012년 5월 고양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굴-동네를 굴러라'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 2012년 7월 14일 동네카페&극장 <동굴-동네를 굴러라> 개관
- 2012년 8월 '도서관 여름들살이 여행'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평화도서관'에서 진행
- 2012년 10월 평화박람회 참가, "평화책 전시회-움직이는 평화" 및 '평화아바타 만들기' 진행
- 2012년 11월 '고양파주 공동육아 대안교육한마당' 참가
- 2012년 12월 동네 송년회 '하소연 콘서트'에서 "판소리-어처구니 이야기" 공연
- 2013년 1월 경기도 '도서관 유공 표창' 받음
- 201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
- 2013년 8월 '도서관 여름들살이 여행'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평화도서관'에서 진행
- 2013년 9월 동네사람들이 쓴 시를 모아 시집 '우리동네 당신' 발간
-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실무교육에서 사례 발표
- 2013년 10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품앗이 교육공동체의 함께하는 육아와 공동체에 관해 교육
- 2013년 10월 고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컨설팅 공동 진행
- 2013년 11월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포럼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발표



협동조합형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가?

‘공유’와 ‘나눔’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부분들의 크고 작음은 도서관의 규모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만, ‘공유’와 ‘나눔’이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소속된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형태를 완성하기도 어렵고 그 형태가 지속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이어서 협동조합을 함께 하는 이유가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공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은 나누어 가져갈 것 속에 만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져갈 것 보다는 함께 짊어질 것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협동조합형 도서관과 일반 작은도서관과의 가장 큰 차이는?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함께 힘을 모은 곳’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기쁨은 조합원들, 이용자들 누구나 나누기 쉬우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는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여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반 작은도서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형 도서관이 더 널리 활성화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협동조합형 도서관이 굳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데, 동네의 환경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그건 오히려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이미 후원회원 조직이나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을 텐데 형태에 얽매어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결실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등록을 해야 하는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장점을 인정해주고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특히 사람들(조합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협동조합형 도서관 운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줬다 해도, 먼저 공간을 만들기보다 함께 공부하며 의식을 공감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다면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는데 그것이 동상이몽이 된다면 지속되기 어려우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 스스로 의식의 성장을 통해 바뀌어야지 행정조직에서 주도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연계 작은도서관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마을신탁에서 장소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책을 만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모아진 곳이다.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이 산곡3동에서 10년 넘게 지역에 뿌리내려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부평대건신탁에서 2층을 도서관으로 무상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청개구리 도서관은 매년 주제가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하고 실험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이 지역사회를 위한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작은도서관이다. 복지공동체 회원들과 후원 회원들이 자신의 능력이 허락 되는대로 자금과 도서, 물품, 재능 등을 기부해 만들었다. 함박도서관은 1명의 상근자와 7명의 운영위원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복합문화 공간이자 주민이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책을 만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모아진 곳이다.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이 산곡3동에서 10년 넘게 지역에 뿌리내려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부평대건신협에서 2층을 도서관으로 무상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청개구리 도서관은 매년 주제가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하고 실험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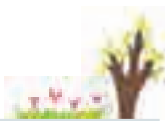


위치 · 규모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317-119 2층
032-521-2040
면적: 110㎡
장서 수: 8700권
<http://cafe.daum.net/treefrog5212040>

운영현황

개관: 2003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인원: 3명 외 자원봉사자
회원 수: 284가족, 600명
일평균이용인원: 40명
운영시간
월~금 오전10시~18시
토 오전10시~15시



1. 조성과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은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화랑농장주변의 오래된 집들과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파트촌의 두 가지 주거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은 화랑농장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 실험의 장소 기부로 공간 문제 해결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부평에는 도서관이 두 곳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걸어서 편하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생기기를 바랐다. 부평여성회와 부평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섰다. 곧이어 청개구리 도서관 준비모임이 꾸러지고 ‘동화 읽는 엄마모임’도 생겨났다. ‘동화 읽는 엄마모임’의 제안으로 ‘청개구리’라는 예쁜 이름이 도서관 이름으로 채택되었 이후 준비모임 회원들은 6개월 동안 도서관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다.

준비모임 회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법 때마침 부평 대건신협에서 증축한 2층 공간을 주민여가시설이나 농수산물 공판장등으로 사용을 고려하던 차에 청개구리도서관에 공간 무상임대를 약속했다. 준비모임 회원들은 도서관 내부설비를 위한 후원금 모금 행사로 분위기를 돋웠다. 그 결과 종자돈 500여 만 원이 모아졌다. 후원금 뿐 만 아니라 도서관 내부 설비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동네 아빠 엄마들이 나서서 서툴지만 책장, 책상도 직접 만들고 바닥 인테리어도 했다.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합심한 결과 공간이 꾸며졌지만 공간을 가득 채울 책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조기축구회(화랑농장) 회원들이 300여 권의 책을 모아다 주며 힘을 보탰다. ‘열린글사랑’ 서점에서도 200권의 책을 기증해 주었다. 이렇게 동네주민과 대건신협 등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침내 2003년 1월 도서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청개구리도서관은 지역 아이들에게는 책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컴퓨터, 때론 동네 어른들의 사랑방으로, 마을의 문화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있다.



재개관 기념 커팅식 행사

다시 태어난 청개구리

2007년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도서관을 산뜻하게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은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전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내 집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또한 옛 다락방의 추억을 되살려 숨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2층 다락방을 마련했는데 현재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 미닫이문을 설치해서 문이 닫히면 별도의 수업공간이 되고 문을 열면 무대가 되는 공간도 만들었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서가였다. 책의 무게를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원목으로 책장을 만들고 다른 시설은 과감히 줄여 책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사서데스크에서 전체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아이들 친화적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뒤 2007년 8월 도서관을 재개관했다. 개관식 때 도서관에 온 모든 사람이 긴 가래떡을 함께 잡고 커팅식을 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한 재미있는 커팅식이었다.

2. 운영사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은 관장과 사무국장, 사무국원 등 유급인력 3명과 다수의 자원활동가들로 운영된다. 자원활동가는 10여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 열람 및 대출, 반납 업무, 도서선정위원회활동,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원 활동가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부평대건신협이 내준 보금자리 덕분에 청개구리 도서관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3년 9월 인천시 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개구리 도서관 활동은 대상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 교실, 내 아이에서 우리아이로 함께하는 엄마모임, 지역과 함께 하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어린이 교실에는 ‘주제가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글쓰기교실’, ‘똑똑이미술’, ‘생태교실’, ‘하룻밤자기 활동’ 등이 있다. 엄마모임에는 ‘동화 읽는 엄마모임’, ‘주부생태학교’, ‘예비 학부모 교실’, ‘도서관사서학교’ 등이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하는 활동에는 ‘열두달보자기 강좌’, ‘수지침과 요가’, ‘주민 영화제’, ‘맹꽁이가 사는 부영공원 지킴이 활동’이 있다. 그중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매년 기획단 회의에서 도서관 철학에 맞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긴 호흡으로 1년 동안 진행하는 청개구리 간관 행사다. 2009년 ‘우리 마을 이야기’, 2010년 ‘반갑다, 멋쟁이한글아’, 2011년 ‘폴등아, 물개야, 백령도야 우리가 갈게(인천섬기행)’, 2012년 ‘기절초풍 사라진 놀이를 찾아라’, 2013년 ‘청개구리 옛이야기를 듣다, 옛날에 옛날에’등을 소재로 각각 진행했다. 1년 동안 글쓰기, 미술, 만화, 인형만들기, 인형극, 연극활동 등을 하고 12월에 청개구리송년회에서 발표회를 한다. ‘우리마을이야기 활동’에서는 우리 동네의 역사와 우리 마을에 있는 옛이야기를 찾아다녔다. ‘반갑다, 멋쟁이한글아’ 활동에서는 간관조사, 한글패션쇼, 비속어 설문조사를 하며 우리말 공부를 했다. ‘인천섬기행’에서는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찾아가보고 ‘사라진놀이를 찾아라’에서는 어른 아이 모두 신나게 전래놀이를 했다. ‘청개구리 옛이야기를 듣다’에서는 옛이야기가 유래한 곳 답사, 신화이야기듣기, 옛이야기 듣기 활동을 진행했다. 한 해 동안 벌인 활동은 연말 문집에 담아 남긴다.

청개구리 이야기1

매년 주제 있는 어린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인천섬기행'을 갔을 때 장마로 일정이 취소됐지만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 않고 바지락을 깨던 아이들, '전래놀이'를 할 때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정신없이 놀던 아이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주제 있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매력은 단기간에 기술적으로 공부하듯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1년 동안 한 주제로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그 배움을 연극발표와 문집으로 정리한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청개구리도서관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다.

지역과 함께 더불어 숨 쉬는 도서관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노력으로 생겨났다. 그래서 청개구리 도서관은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골목을 지나는 할머니, 아이 키우는 엄마, 가게 아저씨, 마을에 섬처럼 떠있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마냥 놀고 싶은 아이들이 어느 때나 부담 없이 찾아오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 활동을 바탕으로 2011부터 적극적으로 마을을 향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동아리 '생활문화공동체 열두달보자기'가 시작이었다. 소비에 익숙한 도시인들에게 자원을 순환시키는 '되살림강좌', '친환경 생활재 만들기', '장 담그기', '떡 만들기'를 하며 대안적 생활양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되살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년간의 준비 기간 끝에 청개구리도서관 맞은편에 열두달보자기 마을카페를 연 것도 작은 성과다.



1. 사라진 놀이를 찾아라
2. 화랑북로 골목축제

도서관이 중심이 된 또 하나의 사업으로는 주변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화랑북로 골목축제'를 들 수 있다. '화랑북로 골목축제'는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침체기를 맞게 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골목과 마을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2013년 10월 26일, 도서관 앞 골목에서 열린 '화랑북로 골목축제'는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찾았다. 유진수퍼 아저씨의 화분만들기를 비롯해 이미경 헤어라인 미용실의 브러지염색, 낙원떡집의 인절미만들기, 러브데코홈패션의 가방만들기, 한우명가의 삼겹살 시식 행사 등, 상인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펼쳐졌고 열두달보자기 마을카페에서도 천연비누만들기를 시현했다. 마을사람들과 골목 상인들과의 거리가 좁혀진 뜻 깊은 행사였다.

3. 재정마련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큰 후원기관은 부평대건신협이다. 부평대건신협은 장소 대여와 더불어 매달 일정액을 도서관에 지원하고 있다.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후원회원이 내는 회비이다.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CMS 계좌를 이용하여 꾸준히 도서관을 후원하고 있는데 2013년 하반기 현재 약 1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다. 후원금 내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예산 집행 및 결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2년에 한번 청개구리 후원 주점을 열어 도서 구입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정마련을 위한 물품 판매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부평구청이나 사회사업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부평문화재단으로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으로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평구청으로부터 작은도서관 활성화자금으로 3회에 걸쳐 95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공모사업 지원의 경우 2009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희망의 작은도서관 책문화프로그램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0년 아름다운재단의 마을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역시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1년 MBC로부터 사랑의 난방비로 2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2년 인천문화재단으로부터 시민문화예술사업지원금

으로 700만 원을, 2013년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로 선정되어 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2012년의 경우, 총 지출은 3,400만 원이었고 수입은 3,311만 원 내외였다. 운영비 지출 항

외부 지원금 내역(2007-2013)

지원년도	내용	지원단체	금액
2007년	작은도서관운영요원지원	부평문화재단	2,000,000원
2008년	작은도서관운영요원지원	부평문화재단	2,000,000원
2009년	작은도서관운영요원지원	부평문화재단	2,000,000원
2011년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금	부평구청	2,000,000원
2012년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금	부평구청	3,500,000원
2013년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금	부평구청	4,000,000원
2009년	희망의 작은도서관 책문화프로그램	책읽는사회문화재단	3,000,000원
2010년	마을작은도서관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	3,000,000원
2011년	사랑의 난방비	mbc	2,000,000원
2012년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7,000,000원
2013년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아름다운재단	5,000,000원

목을 보면 인건비가 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통신비 122만 원, 수도 광열비 869천 원 등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공모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수입의 경우 CMS 회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9,140,265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후원금 5,096,400원, 대여수익 26만 원, 기타 판매수익이 95,000원 이었다.

운영내역(1202년 기준)

지출			수입	
운영비	급여	9,600,000원	이월금	
	복리후생비	696,160원	CMS회비	9,140,265원
	통신비	1,226,653원	후원금	5,096,400원
	수선유지비	389,600원	판매수익	95,000원
	비품구입비	460,290원	대여수익	260,000원
	도서구입비	118,690원	수입이자	242원
	지급수수료	528,000원	특별회비	19,870원
	수도광열비	869,100원	공모사업 1	7,000,000원
	전기세	834,800원	공모사업 2	4,000,000원
	회의비	120,900원	도서지원	5,000,000원
	잡비	194,230원	활성화지원금	2,500,000원
	사업비	연대사업비	330,000원	
인쇄비		249,700원		
행사비		111,100원		
자료구입비		163,120원		
발송비		473,430원		
공모사업 1		7,000,000원		
공모사업 2		4,000,000원		
도서지원 3		5,000,000원		
활성화지원금		2,500,000원		
비용총액		34,865,773원		
			수익합계	33,111,777원
합계				-1,754.00원

4. 기타

청개구리 이야기2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꿈꾼다. 때문에 지역민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교육을 통해 자원 활동가로 활동하고 도서관의 운영자로 성장해 지역민과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구조다. 마을기업 되살림카페 '열두달보자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 현 사무국장 조운영 씨는 '동화 읽는 엄마모임' 5기로 도서관 이용을 시작한 케이스다. 책을 즐겨 읽던 그녀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사서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도서관 사무국장이 되어 도서관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도서관 운영자로 활동 중인 조운영 씨도 이용자로 활동하다가 운영자가 되었다. 이사와 함께 도서관을 찾기 시작한 그녀는 도서관활동가 교육을 소개받고 자원활동가 과정을 수료했다. 유아대상 책놀이 프로그램인 '책속에 풍덩', '유아6주 책 놀이', '북스타트' 등이 그녀의 손을 거치고 있다.



도서관학교 활동가 교육

청개구리 발자취

- 2003년 개관
- 2004년 열린학교 운영
- 2007년 희망의 작은도서관만들기 선정 리모델링
- 2008년 책속에 풍덩(어린이 책놀이 활동)
- 2009년 주제 있는 어린이프로그램 시작
- 2011년 생활문화공동체 열두달 보자기 활동
- 2013년 인천시 우수작은도서관 선정
- 2013년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화랑북로 골목축제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이 지역사회를 위한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작은도서관이다. 복지공동체 회원들과 후원 회원들이 자신의 능력이 허락 되는대로 자금과 도서, 물품, 재능 등을 기부해 만들었다. 함박도서관은 1명의 상근자와 7명의 운영위원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주민이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치 · 규모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494-6 4층
032-822-1082
면적: 110㎡
장서 수: 8700권
cafe.daum.net/hambaklibrary

운영현황

개관: 2012년 6월 2일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인원: 관장과 상근직원 1명 외 자원봉사자

회원 수: 284가족, 600명
일평균이용인원: 40명
운영시간
평일 10시~18시
토요일 10시~15시

1. 조성과정

인천의 허파인 문학산 양지바른 남쪽에 가면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함박도서관은 그 입구에서부터 함박웃음을 짓게 만드는 곳이다.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웃고, 서가 가득 꽂힌 책들을 보며 웃고, 푸른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웃는다.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민이 오래 오래 살고 싶은 동네, 그길로 가는 중심에 함박도서관이 있다.

공동체 문화를 꿈꾸는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이 위치한 함박마을은 인천시 연수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도서관이 들어설 때만 해도 경로당을 제외한 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이 전혀 없었다. 주민의 다수가 세입자인데다 대부분의 집이 비좁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갖출 집이 드물었다.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뺄뺄이 들어서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골목길조차 여의치 않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몇몇 마을 주민과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이 뜻깊은 일을 하는데 의기투합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공간, 주민들이 희망을 상상하게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지랄 수 있는 곳 함박마을

할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시작한 것이다.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의 모체는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이다.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모인 비영리민간단체다. 착한 꿈을 실현해보겠다는 목표로 십시일반 출자하여 설립된 푸른마을은 4년 만에 출자자 120여 명에 출자금 1억 원을 훌쩍 넘긴 지역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은 협동조합 정신을 일상 취미생활에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림 동아리인 '비움채'의 경우 회원의 장소 기부와 인테리어 기부, 재능 기부로 운영되며 모아진 회비의 일부를 다시 현안사업에 기부(함박도서관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체의 현안 사업으로 출발

작은도서관 설립은 공동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은 2010년 1월 연수1동에 참조은아이지역아동센터를 열고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구감살 없이 밝게 자라도록 돌보아왔다. 이후 참조은아이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두 번째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1년 상반기 푸른마을 상임이사회는 노인복지사업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 아동정신보건 사업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논의 끝에 마을 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설립 장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함박마을로 정해졌다.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은 작은도서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2년 2월13일 첫 모임을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부이사장을 중심으로 3명의 이사와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회원 3명, 마을주민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푸른마을은 작은도서관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지역주민의 배움터와 쉼터, 그리고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는 썬터의 역할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추진위는 거의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다. 또한 인천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며 설립 및 운영 사례를 수집했고 인천 연수도서관 문헌정보과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도서관리를 초기부터 전산화할 수 있었다.



1. 개관 축하 사물놀이



2. 어린이실 내부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책 3천 권이 기초

책을 모으고 도서관이 들어설 건물을 물색하는 등 실질적인 절차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열기에 기존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의 인적자원과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 운영노하우가 더해진 결과였다. 몇 달 사이에 3천여 권의 책이 모아졌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출판사들로부터도 책을 기증받았다. 부족한 책은 신간을 구입해서 보충했다. 신간 구입은 아동도서와 청소년 및 일반도서의 비율을 2대 1로 유지했고 아동도서와 청소년도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와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인디고서원 등의 추천도서목록을 참고했다.

개관비용은 복지공동체 푸른마을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결했다. 건물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신간과 서가, 도서관리 프로그램, 컴퓨터와 가구, 기타 집기를 구비했다. 푸른마을의 그림동아리 비움채는 전시회를 열어 40여점의 기부판매를 통해 얻은 1천여만 원의 수익금 전액을 도서관 설립기금으로 내놓았다. 정형외과 의사이자 지역사회 원로로서 지문 역할을 해주던 고 흥성훈 원장이 1천만 원을 기부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책 기증을 필두로 안 쓰는 가구와 각종 비품들을 기증했다. 재능기부도 이어져 은행나무로 현판을 만들어 보낸 분이 있는가 하면 손글씨 POP, 실내장식, 그림 장식 등에 각자의 손길을 더해왔다. 개관을 전후하여 200여 만 원의 후원금이 더 답지했고 이들 중 75% 이상이 CMS 후원자였다.

2. 운영사례

도서관 운영의 핵심, 운영위원회

함박도서관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운영 인력은 관장과 상근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도서관 운영인력의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급 상근자를 두고 있다. 상근자는 주 5일 근무하며, 퇴직연금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관장은 최소한의 활동비를 받는다. 업무분장을 보면 관장은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연계,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상근자는 이용자 및 후원자 관리, 도서 대출 및 관리, 동아리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등의 실무를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푸른마을 회원 3명, 마을주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도서관의 운영현황과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성인 및 어린이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연대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진행, 대출 및 반납 업무, 자료수서 및 서가정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도서 구입 시 도서관 전체 이용자 중 유아와 초등 저학년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림책 구입 비중을 가장 높게 잡고 있으며 전체 도서구입예산을 감안해 격월로 도서를 구입한다. 장서는 운영위원 중 도서선정 위원이 선정하며 특히 생태와 사랑,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도서구입에 중점을 둔다. 정기간행물은 어린이 잡지와 출판물, 지역문화잡지, 성인 출판물 등 4종이 들어오는데 1종을 제외하곤 모두 후원자가 연간 단위로 기부하는 형태다.

세 가지로 특화된 프로그램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의 목적은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나눔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호흡하는데 크게 어린이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숲체험교실’, ‘어린이 한자급수반’, ‘어린이 독서교실’, ‘책과 친해지는 역사논술’, ‘전래놀이와 함께하는 북아트’ 등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며 방학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숲체험교실’은 매월 둘째 주 숲해설가의 지도로 현장에서 다

옥상에서
펼쳐진 자연놀이 수업



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청정지역을 찾아가 반딧불이를 직접 만나볼 수도 있어 인기가 높다.

성인 프로그램은 크게 취미 및 교육 강좌와 동아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부들이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취미활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는데 리본공예, 비누공예, 비즈공예, 뜨개교실 등을 열고 후속모임을 이어간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거, 의료, 교육, 고용문제 등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복지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양미술감상, 독서교육특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 ‘엄마들의 수다’는 매주 한번 그림책을 읽고 토의하는 모임으로 40대 전후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개관1주년 기념행사 때 인형극을 올려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함박도서관이 가진 자랑 중의 하나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여건이 어려워 도서관을 스스로 이용하기 힘든 가정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진행하며 대출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대상가정을 찾아내고 도서관 성인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팀을 이뤄 매달 한 차례 활동한다. 찾아가는 방과 후 독서교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방과 후 독서교실은 공립공공도서관인 연수도서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두 차례 역사, 문화 등의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에 부는 푸른 바람, 함박 바람

함박도서관이 만들어진 후 함박마을에서 급속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을 주민 조직인 함박마을공동체가 출범했고 주민복지시설인 행복나눔터(상담소, 공동육아, 야간 돌봄교실)가 조성되고 있다. 2012년 개관 직후 연수구가 지원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함박도서관이 주관하기도 했다. 먼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마을주민을 참여시키고 이 주민문화센터, 경로당, 건물주협의회, 보육기관 등 대표적인 마을단위가 함께하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뒤를 보조하고 있다. 추진위는 5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며 마을의 현안을 공유해왔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잔치가 열리고 주민강좌가 열렸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킴이들이 나서고 취약지역에 벽화작업도 진행했다. 그 성과물으로써 올해 초 함박마을공동체가 출범했다. 도서관 역시 회원자격으로 함박마을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3. 재정마련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의 재정은 출자금과 후원금(기부금), 운영보조금, 기타 프로젝트 사업지원금으로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1인 1표주의’, ‘1인 혹은 1단체 총출자금의 30% 이상 출자 금지’ 등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적용된다.

대의구조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박도서관의 운영과 재정 현황은 온라인카페 게시판과 상임이사회에 매달 공개된다. 도서관 후원금 모금은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차원으로 진행하며 CMS, 직접이체, 일시 후원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개관 첫째 복지공동체 푸른마을은 도서관에 1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도서관이 재정자립을 할 때까지는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3년 도서관의 월 정기 후원자는 136명이며 81%가 5천 원부터 10만 원을 약정한 CMS 후원자 또는 기업이다.



회원들의 정기적인 후원 이외에도 외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2013년 인천시의 작은도서관지원조례가 마련되면서 구와 매칭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다. 함박도서관은 연수구의 평가를 통해 도서관구입비로 35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 되었는데 2차에 걸쳐 총 2,757천 원이 들어왔다. 그밖에 푸른두레생협이 천만 원의 기금으로 마련한 ‘느누미사업회’ 지원사업을 통해 150만 원을 지원한바 있기도 하다.

4. 기타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은 넉 달에 한 번 소식지를 발행해 회원과 후원자,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동향과 후원현황을 전한다. 도서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알릴 땐 함박마을 정중앙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마을에는 1년 내내 도서관 현수막이 내걸린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단지나 포스터 등을 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동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기도 한다. 개관할 때부터 인근지역 초등학교들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와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

다. 날씨가 좋을 땐 인근 어린이공원에 나가 홍보활동을 벌인다. 책을 전시하고 읽어주면서 풍선을 나누어주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유도한다.

푸른마을 함박 발자취

- 2012년 6월2일 개관
- 2012년 6월9일 연수1동 '머그미축제 참가' 체험부스 운영
- 2012년 8월14일 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총 사업비 3,921만 원)에 선정
- 2012년 11월10일 제1회 함박웃음(마을)잔치 개최
- 2012년 11월19일~12월17일 주민행복특강 5강 개최
- 2012년 9월15일 소식지 창간호 발행
- 2013년 2월19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가입
- 2013년 3월12일 '시소와그네'와 업무 협약
- 2013년 4월13 ~ 14일 연수구북페스티벌 체험부스 운영
- 2013년 6월1일 개관 1주년 잔치
- 2013년 7월9일 푸른두레생협 누미사업회 기금지원 확정
- 2013년 7월17일 인천연송고와 업무 협약
- 2013년 7월19일 연수구드림스타트와 업무 협약
- 2013년 7월31일 ~ 8월27일 여름방학특강
- 2013년 9월2일 ~ 14일 2013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풀뿌리 시민단체 협력 작은도서관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

시민단체에서 출발,
마을엄마들이 운영하는 도서관,
공간은 지자체에서 무상지원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은 지자체의 공간 무상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 지원 속에 풀뿌리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성되었다. 도서관이 위치한 중촌마을은 도서관을 구심점으로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3년 2월 준비모임을 구성한 뒤 주민기자단 모집을 마친 <오! 마을>은 매회 1만부를 발행하며 마을신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과 생태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짜장마을 절전소>에는 마을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넘쳐난다. 2012년 여름 대전시 텃밭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렁이네 텃밭>에선 유기농 배추 등을 심어 김장을 담그고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 이러한 활동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중촌마을을 견학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시민단체에서 지원,
주민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도서관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풀뿌리 시민단체인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회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건립한 작은도서관이다. 유급 상근직원 1명과 무급 운영위원 8인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17년간 3차례 이전을 통해 현재의 장소에 뿌리를 내렸다. 1998년부터 시작한 품앗이 공동육아 전통이 특색이며 20여 개 가까운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소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시민단체와 마을엄마들이 운영하는 도서관,
지역주민들의 십시일반기금으로 조성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건립한 광주지역 최초의 민간 어린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급 상근직원 1명과 자원활동가들이 영역을 나누어 봉사하고 있다. '금당산지킴이' 등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도 줄이고 공동육아의 장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도서관 엄마학교'도 인기에 운영 중이다.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은 지자체의 공간 무상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 지원 속에 풀뿌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성되었다. 도서관이 위치한 중촌마을은 도서관을 구심점으로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3년 2월 준비모임을 구성한 뒤 주민기자단 모집을 마친 <오마을>은 매회 1만부를 발행하며 마을신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과 생태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짜장마을 절전소>에는 마을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넘쳐난다. 2012년 여름 대전시 텃밭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렁이네 텃밭>에선 유기농 배추 등을 심어 김장을 담고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 이러한 활동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중촌마을을 견학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위치 · 규모

대전시 중구 중촌동 62-2 중촌다목적
복지회관 1층
042-226-3534
면적: 90㎡
장서 수: 8,000권
<http://cafe.naver.com/jijajang>

운영현황

개관: 2007년	회원 수: 2000여 명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일평균이용인원: 30명 내외
운영주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시간
운영인원: 유급 1명 및 다수의 자원활동가	화-토 오전 10시-오후6시



1. 조성과정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가면 누구나 귀에 익숙한 '짜장'이란 말을 뜻밖에도 도서관으로 만난다. 우리가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 짜장은 '정말', '참'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 우리말이다. 짜장도서관이라는 이름에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숨어있는 본래의 의미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엄마들의 동화소모임이 도서관으로 발전

인구 2만여 명이 모여 사는 구도심 대전 중구 중촌동은 신도심인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동네였다. 하지만 어린이도서관이 터를 닦고부터 서서히 지역에 생기가 돌고 있다.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 곳을 찾았고,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가던 주민들도 도서관을 매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06년이다. 2001년부터 꾸준히 풀뿌리 문화운동을 전개해온 대전여민회가 그 주축이었다. 대전여민회 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



도서관 내부

화를 읽고 담소를 나누는 ‘아름아리’라는 엄마들의 소모임이 있다. 동화를 매개로 모인 아
름아리 회원들은 대전여민회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다. 나눔
장터와 어린이경제교실, 책잔치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가까운 공원에서 진행할 때도 이들
소모임 구성원의 역할이 컸다. 약 3~4년 정도 활동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대전여민회 내
에 여섯 평정도 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 책사랑방 도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게 되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짓기 운동이 번져
가던 때였다. 이들은 2006년 7월 중촌동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 동사무소의 열린 행정에 회원들의 자발적 열정이 더해지다

주민들은 중촌동 마을어린이도서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가
졌다. 때마침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의 어린이도서관을 지원하겠다고 나섰
다. 지원 대상은 25평 이상의 공간을 가진 어린이 도서관이었다. 고민 끝에 주민들은 동사
무소를 찾아갔다. 동장과 면담을 한 결과 30여 평 규모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
다. 활용이 미미한 중촌다목적복지회관 일층을 도서관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
만 공공시설을 특정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대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
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여민회 입장에서는 주민참여 공간이 마련되어 오
히려 반가운 제안이었다. 대신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주민의 자발성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동장으로부터 받았다. 앞서서 꾸준히 진행해 온 대전여민회
의 마을활동을 지켜 본 당시 중촌동장이 펼친 유연한 행정의 결과였다.

도서관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 여민회 사무실에 어린이 책사랑방을 꾸몄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과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집기와 도서를 구입했다. 3년에 걸친 주부들의 노력에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 지원과 중촌동사무소의 공간 제공이 더해져 예쁜 도서관이 현
실화된 것이다. 도서관은 가정집 공부방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어린이
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나무 바닥재를 깔고 탁자와 책상을 자연스럽게 배치
했다. 각종 발표회를 열 수 있는 작은 무대공간과 신간 안내대·사물함을 마련했고 어린
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그린 작은 벽화도 걸었다. 공사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인

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비의 반 정도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침
내 모습을 갖추었다.

2. 운영사례

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은 유급인력 1명과 다수의 자원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 13
명으로 운영된다. 자원활동가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3시간씩 봉사하고 운영위원 중
에서 1명이 관장을 역임하는 형태다.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11시
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은 연다. 7명의 사서자원 활동가들이 사서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4명
의 자원활동가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원활동가들은 대부분 도서관이 개관한 후 새
롭게 참여하게 된 주부들이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의 아이들이다. 도서관을 찾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져 있으며 30대 중반 정도
의 젊은 엄마들이 많고 아이들과 함께 일과를 보내야 하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에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들

짜장의 프로그램들은 철저하게 어린이 친화적이다. 주 1회 열리는 ‘그림책이랑 놀자’는 유
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다.
역시 매주 열리는 ‘동무동무 책동무’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
그램이며 매월 1회 도서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이
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
다. 매년 1회 열리는 ‘도서관 학
교’는 도서관 이용자와 소모
임 회원, 사서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
할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이다. 역시 매년

동무동무 책동무

1회 열리는 중촌마을문화축제 ‘동네사람들 우리 함께 놀아요’의 인기 고정코너 ‘책읽는 오두막’은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과 함께 책의 주인공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핵심에는 ‘책 읽어주기 진행단’이 있다. 도서관 개관 때부터 5,6년 동안 꾸준히 책읽어주기를 재능 나눔으로 해주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그 주축으로 매년 새로운 멤버들이 결합하면서 도서관의 핵심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엄마와 아이,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짜장 어린이도서관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다. 짜장에는 출산과 육아로 가정에만 있던 엄마들이 이웃과 만나 정보도 교환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울타리로 성장해 가는 기쁨이 있다. 도서 대출은 일인당 2권씩 가능하며 가족회원은 최대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은 매주 금요일에 특별히 야간 개관한다. 이날 저녁에는 ‘아빠수다방’과 동네 아빠가 진행하는 드로잉 모임이 열린다. 도서관옥상에 텃밭을 운영,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꾸기도 한다. 가을배추와 열무 등을 심는데 아이들 교육으로도 쓸쓸하다. 태양빛으로 글을 읽는 의미로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짜장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큰 자량은 어느 곳보다도 왕성한 다양한 강좌와 교육활동에 있다. 연1회 열리는 도서관학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는 강좌와 도서관 운영과 관련 실무 능력을 높이는 강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서 부모들의 관심도 바뀌게 된다. 이런 부모들의 걱정과 바람을 바탕으로 ‘10대와 소통하고 싶은 부모학교’를 열어 10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와 10대를 둘러싼 이슈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사서 자원활동가나 소모임 참여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을 바꾸어 갈 방법을 고민해보는 ‘우리 마을을 확 바꾸는 상상학교’를 열고 있으며 중년이상으로 마을활동에 관심을 가진 왕언니 그룹을 위한 ‘나를 위한 여행, 환경학교’를 열기도 한다.

짜장도서관의 특징은 교육만이 아니라 활발히 운영되는 소모임 활동에도 있다. 제3기 그림책 읽는 모임 ‘까꿍’은 유아를 둔 엄마들이 아가랑 모여 그림책도 읽고 다양한 육아활동을 하며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다. 7년째 이어 온 ‘체험강사단’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직접 답사도 하며 체험강좌 ‘도토리 탐험대’를 진행한다. 소

모임은 특성상 관심이 있으면 만들어 졌다 관심이 이동하거나 없어지면 사라지기도 한다. ‘그림책소품제작 모임’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품제작을 담당했다. ‘오카리나 모임’ 또한 인기 동아리였는데 지금은 정기모임이 어려워 쉬고 있다. 이외에도 사서들은 한 달에 한번 씩 사서팀 회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 실무에 관해 의논하고 실행한다. 운영위원회는 2달 한 번 정기회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기획한다.

도서관이 구심이 되어 일궈가는 마을공동체

짜장어린이 도서관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서관이 구심점이 되어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히 마을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이들보다 더 자주 만나 품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던 도서관엄마들이 2009년 이제는 어른을 위한 별도의 마을공동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을까페 ‘자작나무숲’을 만들었다. 공정무역커피와 직접 담근 과일차를 자율가격제로 판매하고 품앗이 강좌를 열고 카페 마당에서 프리마켓도 열며 영화도 같이 본다. 수익이 날 리가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면 마을의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뜻을 모았다.

2012년 처음으로 청소년을 위한 배분사업을 공모해서 2팀에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0년도에는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엄마들의 작업장을 마을기업으로 만들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밀 발효빵을 만드는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을 만들어 2013년 인증과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인 사업장에서 현재는 5인 사업장의

1. 에너지 자립마을 선포식
2. 지렁이네 텃밭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 축제장

로 성장했다. 아이들이 자라면 마을 밖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엄마들이 마을활동이라는 가치 있는 일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자는 요구를 바탕으로 궁리를 한 결과다.

2012년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붕괴이후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문제를 걱정만 하고 있지 말자고 뜻을 모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충청지사와 협력하여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절전이 곧 발전이라는 모토로 <짜장마을 절전소>를 만들기도 했다. 매월 정례모임을 통해 에너지 공부도 같이 하고 절전 노하우도 나누는 주민학습모임에는 마을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넘쳐난다. 2012년 여름 대전시 텃밭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렁이네 텃밭>에선 유기농 배추 등을 심어 공동김장을 담그고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어린이책잔치’는 회를 거듭하여 이제는 매년 10월 열리는 중촌마을문화축제의 ‘동네사람들 우리 함께 놀아요!’로 자리를 잡았다.

마을안의 지역아동센터,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노인정, 풍물패, 초·중학교, 대안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민주체가 모여 매년 8월이면 중촌마을문화축제추진단을 구성하여 축제기금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준비한다. 그동안 집중해온 중촌마을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인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마을신문 <오!마을> 창간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 각지에서 견학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촌마을 자체를 브랜드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3. 재정마련

도서관은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와 약간의 수익 사업,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운용된다. 2013년 하반기 현재 정기적인 후원회원은 125명이며 매월 130만 원 내외의 후원금이 걷힌다. 마을기업과 협력활동을 통해 약간의 후원을 받기도 하며 4년 전부터 매년 찻집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도서관운영과 마을공동체활동에 쓰고 있다. 일일찻집은 직접 찻집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티켓구매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년 7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 재능기부 내역 등은 도서관 소식지를 통해 공개되며 매년 결산하고 역시 소식지에 보고한다. 매년 300여만 원의 도서관입비를 지자체(대전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이 역시 도서관 운영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2013년 중구 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를 현실화하고 작은도서관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작은도서관, 의회, 행정 등이 분기별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어 향후 도서관 예산확보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4. 기타

짜장 발자취

- 2007년 2월 22일 개관
- 2010년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 2010년 도서 6,400여권 보유, 대출회원 1,507회원, CMS후원회원 134명, 도서관이용자 연 11, 201명
- 2011년 2월 우리마을 역사 알아보기-어른대상, 개관 4주년 기념행사 및 관장 이·취임식
- 2011년 10월 제5회 중촌마을문화축제 “동네사람들, 우리 함께 놀아요~!”
- 2011년 11월 짜장 자원활동가 비전워크숍 “짜장 사랑 빠지기”
- 2012년 2월 개관 5주년 기념행사 및 3대관장 이, 취임식
- 2012년 8월 대전시 지원 옥상텃밭 ‘지렁이네 텃밭’ 조성
- 2012년 10월 제6회 중촌마을축제 “동네사람들, 우리함께 놀아요~!” 마을주민 1,500명 참여
- 2012년 11월 ‘에너지지립마을 선포식’
- 2012년 도서 7,297권 보유, 대출회원 1,822명, 도서관 이용자 연8,849명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풀뿌리 시민단체인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회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건립한 작은도서관이다. 유급 상근직원 1명과 무급 운영위원 8인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17년간 3차례 이전을 통해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1998년부터 시작한 품앗이 공동육아 전통이 특색이며 20여 개 가까운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소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위치 · 규모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91-4
02-428-4686
면적: 132㎡
장서 수: 10,000권
<http://cafe.daum.net/dokkebiya>

운영현황

개관: 1996년
운영유형: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열린사회시민연합강동송파지부
운영인원: 9명
회원 수: 200명
일평균이용인원: 30명
운영시간: 10:00~18:00



1. 조성과정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세 번의 이사를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개관 초기의 다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써 누구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광장,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책 놀이터, 책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아이와 어른들의 마을사랑방 역할이 그것이다. 그 속에서 아이도 어른도 함께 크다.

가정집에서 지켜낸 도서관의 꿈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그 어느 곳보다 지역 주민들의 땀과 열정이 가득 묻어 있는 곳이다. 1996년 1월, 지역주민운동단체 (현)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 회원들이 600만 원의 자금을 모아 아이들이 뛰어놀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운영 1년 만에 단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공유선 씨가 책을 모두 자기 집으로 가져와 가정도서관 형태로 계속해서 도서관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비디오 자료 400편, 책 1,500여권으로 24평 아파트를 책방으로 꾸미고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집을 개방해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 엄마들과 책 읽는 모임을 만들어 회원을 20여 가족으로 늘렸다.



데스크

재개관과 소문 자자했던 품앗이 공동육아

회원들은 1998년 잠실 시영아파트 13평을 얻어 다시 도서관을 재개관했다. 당시 소식지와 리플릿에 실린 어린이도서관의 구호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작은 공간'이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는 품앗이 공동육아 공간으로, 오후 1시에서 6시는 도서관으로 개방하여 열린교육과 공동육아 강좌와 그림책 읽기, 인형만들기, 엄마 모임, 글쓰기와 책읽기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3년간 품앗이 공동육아 모임이 4개 구성되었고 여성특별위원회 프로젝트로 '품앗이공동육아 부모교육강좌'를 12회 진행하며 40여 명이 넘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신문과 방송에 다섯 차례나 보도가 될 정도로 도서관 품앗이 공동육아는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참여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공간 문제가 불거졌다. 좁은 아파트가 넘쳐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운영진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도서관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2000년 3월 송파구 풍납동에 27평 공간으로 도서관을 전격 이전, 상근자를 두면서 도서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품앗이공동육아도 계속 이어졌고 45인승 버스를 빌려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행사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했다. 엄마들은 인형극소모임을 만들어 춘천 인형극제에도 참여하였고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놀이터 인형극에도 참여했다. 2004년부터는 3년 연속 시민회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프로젝트 '도서관학교'를 최초로 기획, 도서관과 책, 그리고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등의 주제로 주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기도 하다.

강동구 고덕동에 안착하다

2008년 함께크는우리는 또다시 도약한다. 강남이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에 열악한 강동구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엄마모임 '도.깨.비'와 만나면서 강동구 고덕동으로 도서관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강동구 고덕동은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전체 주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기구의 80%가 세입자이며 이 중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던 곳이었다.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와 일반주택가 사이의 시장 안에 자리를 잡았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전 당시 삼성문화재단과 책읽는사회만들기문화재단의 희망의작은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공간리모델링

비 일부를 지원하였고 시민회 집수리자원봉사팀의 도움으로 새롭게 도서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풍납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동 엄마들이 시민회 사업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운영사례

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시민단체인 열린사회시민연합강동송파지부다. 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에서는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는 <헤뜨는 집>을 비롯해 방과후 어린이집인 <구립 천일 어린이집>, 역시 작은도서관인 <천일 어린이도서관 웃는 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유급 상근직 1명과 무급 운영위원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운영위원회는 월1회 모임을 통해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후원금 내역도 이때 보고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도서관 운영에 절대적이다. 자원봉사는 도서관 이용자중 도서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모집하며 도서관 오전지킴이, 토요지킴이,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는 약 20여 명에 달한

- 1. 엄마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
- 2. 생생자연이야기



다. 다른 도서관과 달리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의 운영정신은 품앗이공동육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지 도서관에 오는 부모들은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는 육아품앗이로 출발하여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함께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도 하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교육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된다.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기본업무인 독서관련 프로그램과 아이와 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각종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독서관련 프로그램에는 ‘벼와보리(엄마 독서토론모임)’, 마을내 어린이집친구들이 참여하는 ‘도서관 방문책읽기’, ‘꿈꾸는서당(어린이를 위한 고전강좌)’, ‘나는 책놀이(그림책보고 활동하기)’, ‘책이 그랬어(청소년 독서토론모임)’, ‘북클럽(어린이대상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등이 있으며 각종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는 ‘도토리(3,4세 대상 육아품앗이)’, ‘꼬매(성인대상 바느질동아리)’, ‘함께크는보물탐험대(초등대상 역사탐방 동아리)’, ‘화모니(가족합창동아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종이접기(유아, 초등대상 강좌)’, ‘스크린영어(초등대상 영화를 통해 배우는 영어 강좌)’, ‘토샘(지역내 다문화, 저소득자녀를 위한 학습강좌)’ 등의 교육강좌가 수시로 열리며 단오나 대보름 등에는 지역민과 함께 절기행사를 치른다. 금년 추석에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모여 다함께 송편을 빚었다. 2년마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장서는 국립도서관이 지원하는 코라시스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며 열람은 지역민 누구나 가능하고 대출은 후원회원에 한해 1회 7권까지 가능하며 연장할 수 있다. 연간 도서구입비로는 2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다. 도서는 유통업체를 통해 신간 위주로 구매하고 장서 선정은 이용자들로부터 신청도서를 받아 우선 구입한다. 문학 관련단체 추천도서와 미디어 소개된 책 중에서 좋은 책을 선정하여 구매기도 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지역민들이 대부분이며 하루 평균 30명 내외다. 단순히 도서 대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육아품앗이, 초청강좌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이다.

3. 재정마련

함께크는 우리작은도서관의 재정은 모단체인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와 통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린강동송파시민회는 회비납부회원이 400여 명이고 월 500여만 원의 고정회비 수입을 거두고 있다. 도서관 지정 후원회원은 120여 명인데 이 중에서 시민회 회비 수입의 절반 정도를 함께크는 우리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4. 기타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의 소원이 있다면 어린 영유아들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없는 도서관으로서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명칭도 ‘함께크는우리 어린이도서관’에서 최근에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다. 공간의 다각화가 절실하던 차에 서울시 북카페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하여 도서관리모델링을 지원받게 되었다.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은 2013년 12월 중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4년 1월, 주민들에게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다.

함께크는우리 발자취

- 1996년 1월 개관
- 1997년 도서관 폐관으로 공유선씨, 집에서 개인 운영
- 1998년 잠실 시영아파트에서 재개관
- 2000년 3월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전
- 2004년 3년 동안 행정자치부 프로젝트 ‘도서관학교’ 기획 운영
- 2008년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전
- 2011년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 음악회 개최
- 2013년 서울시 마을북카페 선정 리모델링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건립한 광주지역 최초의 민간 어린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급 상근직원 1명과 자원활동가들이 영역을 나누어 봉사하고 있다. '금당산지킴이' 등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도 줄이고 공동육아의 장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도서관 엄마학교'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위치 ·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09
롯데슈퍼센터 4층
062-652-1279
면적: 83㎡
장서 수: 7000권
cafe.daum.net/totolibrary

운영현황

개관: 2007년	회원 수: 500명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일평균이용인원: 30여 명
운영주체: 광주시민센터	운영시간
운영인원: 1명 외 자원봉사자	오전10시~오후6시(공휴일 휴관)



1. 조성과정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은 인구 4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문화시설은 전무한 곳이었다. 다른 지역보다 젊은 세대가 많이 모여 살아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절실했다. 이러한 사정을 지켜보던 몇몇 젊은 엄마들과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 도서관건립위원회를 조직했다.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마련한 5천만 원

도서관건립위원회는 2007년 4월 첫 모임을 갖고 월2회 정기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를 통해 도서관건립기금 마련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도서관 모니터링 및 타 지역 작은도서관 탐방을 계획했다. 건립위원회에는 도서관 건립에 뜻을 둔 어머니 여섯 명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주민 등 약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다. 도서관 장소선정, 기금마련, 조직구성, 도서관 프로그램과 내부시설, 도서 선정 등의 전 과정이 건립위원회 위원들의 열성적인 참여 속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건립위원회가 첫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는 건립기금을 모으는 일이었다. 먼저 5천 만 원의 목표 금액을 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모금했다. 뜻이 모아지자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돕고 나섰다. 1구좌 10만 원을 기본으로 최대 10구좌, 1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했다. 도서관 건립기금을 낸 지역민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참여를 높였다.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를 비롯하여 대학생과 대학교수, 지역 공인중개사, 지역신문 기자, 식당 주인 등 지역에 적을 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돈을 기부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었다. 도서관 조성기금은 도서관 전세계약금과 임대료, 내부시설 인테리어,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보니 도서 구입비용이 부족하여 또다시 개관 2주 전에 '하루밥집' 후원행사를 열어 5백만 원을 마련하고 신간도서 구입비용에 보탬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우리 힘으로 마련하자는 추진위원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도움 속에서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 마침내 도서관 문을 열 수 있었다. 광주지역 최초의 민간 어린이 도서관이었다.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키워나가고 마을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엄마들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작지만 꿈이 가득한 아이들의 문화공간으로 결실

을 맺은 것이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 등을 통해 개관식 공연에 참여했으며 인쇄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뒹굴 수 있는 공간과 양질의 도서 마련

도서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특색 있는 공간구성과 양질의 도서 확보였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는 곳, 비밀스러운 곳에 숨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반영하여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공간을 설계했다. 도서관 현관문에 나뭇잎 모양의 문양을 넣고 공간을 분할할 때 벽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기둥을 사용한 것도 이런 특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열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자도 되고 책상도 되는 책고랑을 만들고 2층 다락도 만들었다. 아이들이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 와! 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공간, 비밀스럽게 숨어들고 싶은 공간,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랐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



도서관 내부 모습

려하여 유리창에 안전 고리를 걸고 소화기를 비치했으며 기본 재료 또한 모두 친환경 소재를 선택했다.

개관당시 소장도서 목표가 2천 5백 권이었으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도서관지기(도서관 개관 후 실제 운영을 담당한 자원봉사자들을 이르는 말)들이 모은 책 2백 권, 시립도서관 순회도서 2백 권, 기증받은 책 2백 권, 하루밥집을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구입한 5백 권을 합쳐 1천 백 권으로 도서관을 개관했다. 장서 구성에 있어서는 그림책, 옛이야기, 창작동화(국내창작, 외국창작), 지식책(과학 환경, 역사 인물, 예술 등), 청소년을 위한 책, 어른을 위한 책, 동요와 동시, 기타 글모음 등으로 구성했다. 우선 도서 확보가 시급했기에 개관 이후 매달 꾸준히 신간도서를 구입하였다. 개관과 동시에 '도서 대출을 위한 3천 권 도서 모으기 운동'을 펼쳐 1년 뒤 3천여 권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책이 늘어나면서 아이숲 어린이도서관만의 특성화를 살리는 쪽으로 장서량을 선별하게 되었다. 도서관지기들도 매번 좋은 책을 추천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입고되는 책은 먼저 어른들이 꼼꼼히 읽어보고 좋은 책을 선별 배치했다. 도서관 이용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고려하여 그림책 비중을 가장 크게 잡았으며 구입한 책의 50%를 신간 그림책으로 채웠다. 책고랑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그림책이 모이자 도서관에 처음 온 사람들도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다음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공부할 도서 목록을 중심으로 작가별 그림책과 청소년 도서를 배치했다. 해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월별 구입예산을 감안하여 장서를 갖추느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오는 날은 요즘도 잔칫날처럼 아이들로 북적인다.

2. 운영사례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광주시민센터'와 지역 주민들이다. 관장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부, 교육부, 문화부, 홍보부, 사서로 파트를 나누어 일을 진행하며 부서별 책임자를 두고 있다. 주1회 도서관실무자 회의를 통해 도서관업무를 논의하고 월1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서관 상황을 보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논의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관장, 지역대표, 도서관



대표, 시민단체 대표, 사서, 구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서 1인은 유급 상근직이고 관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활동가들은 무급 자원봉사로 활동한다. 사서의 인건비는 월 70만 원으로, 운영위원들이 월별 일정액을 후원하여 마련한다.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열람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CMS 회원으로 제한되며 1인 4권 기준 1주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구입비는 분기별 50만 원으로 연간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도서는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여 구입하며 장서 선정은 도서관 이용자 희망도서, 분야별 책 분포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분야의 책을 집중 구입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주로 유아 및 엄마들이며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중학년 어린이 이용자가 다소 늘었지만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에만 집중 이용하는 상태다. 아이숲 어린이 도서관은 다음 커뮤니티에서 도서관 카페(cafe.daum.net/totolibrary)를 운영하며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개관 후 현재까지 지역신문 및 방송, 언론 등에 100여 차례 소개되며 광주광역시 최초의 민간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 작은도서관 건립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1. 도서관 운영위원회

2. 도서 분류 중인 청소년 봉사자들



빛고을 어린이 책잔치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의 자랑 가운데 하나는 지역주민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행사가 '우리동네 문화소풍'이다. '우리동네 문화소풍'은 달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녁 먹고 공원에 모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잔치마당이다. 통기타 연주도 하고, 국악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의 댄스 실력도 선보이고, 아름다운 시도 낭송하고, 아이들의 연극도 함께 본다. 이때 도서관에서는 빗그림 공연과 책읽어주기,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도서관 자체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작은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때때로 락페스티벌도 열리고, 아카펠라 공연, 난타와 불춤, 미술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여름밤 둘레둘레 모여 전래놀이를 하면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면은 압권이다.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다.

해마다 가을에 펼쳐지는 '빛고을 어린이 책잔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알리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며 소통하는 자리로 도서

관 행사의 꽃으로 불린다. 전시, 놀이, 문화, 체험, 공연으로 구성된 책잔치는 2천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광주의 대표적 어린이 문화행사로 사랑받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역사, 문화, 생태 기행’도 참여율이 높은 행사 가운데 하나다. 도서관관에서 정기적으로 참여 가족을 모집하여 탐방 여행을 떠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역사와 문화, 생태를 배우는 소중한 참여 프로그램이다.

엄마들이 꾸리는 ‘빛그림 제작, 시민영상제작단’ 활동도 눈에 띈다. 영상에 관심이 많은 10명의 엄마들이 두 모둠으로 나누어 한 달에 2편씩 빛그림 영상을 제작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공이 더해진 끝에 2010년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형 전시 ‘동화나라 만인보’를 기획, 전시하여 시민참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활발한 소모임 활동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도서관 학교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동화읽는엄마모임’, ‘청소년독서모임’, ‘금당산지킴이모임’, ‘도서관지기 세미나’, ‘운영위원 독서토론회’ 등의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책읽어주기가 진행되며 ‘동요 배우기’, ‘그림책 한 편’, ‘옛이야기 한 편 빛그림으로 감상하기’ 등이 열린다. 자유로운 독서활동으로 구성된 ‘큰그림책 보기’에는 행사 때마다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며 도서관 활동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 책 속의 상황을 연출하고 그 느낌을 재현해보는 ‘동화 속 주인공 되어보기’, 누구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골라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작은 책 전시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 진행되는 ‘고학년 독서교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작가와와의 만남’, 작가와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원작과 해설이 있는 영화보기’, ‘한여름밤 옛이야기 소풍’ 등 유아와 초등학생, 부모가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준비되어 있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공동육아의 장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도서관 엄마학교’, ‘도서관 품앗이 학교’도 참여율이 높다. 중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독서모임’은 좋은 책을 읽고, 독서토론과 자원 활동을 펼치는 모임이며 숲과 저수지, 마을을 뛰어다니며 몸과 마음으로 놓고 책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방과후 책놀이터 어린이 독서모임’도 운영 중이다. 마을 앞산인 금당산을 모니터링하며 생태와 환경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금당산 지킴이’ 활동 또한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린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도서관 다문화가정 문화예술교육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등이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3. 재정마련

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관 회원들의 CMS 회비와 책 한 권 값 후원금, 기타 후원금 등에서 나온다. 도서관 CMS회원이 되어 후원하는 주민들은 210명 가량이며 따로 비정기적으로 책값을 후원하거나 물품을 지원해주는 지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 더해진 구조다. 도서관 회원은 CMS를 통해 매월 1만 원을 후원한다. 또한 책 한 권 값 후원계좌를 통한 자율적으로 도서 구입비를 기부할 수도 있으며 광주시민센터에서 도서관 임대료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CMS를 통해 들어오는 월 정기 기부금은 비영리민간단체인 광주시민센터에서 관리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책 한 권 값 후원계좌는 도서관에서 자체적



도서관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밥집 행사

2012년 기준, 재정 집행 현황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 (단위:원)
총계	13,640 천원	(100%)
보조금	12,400 천원	(90%)
감사비	4,800 천원	감사비 75,000원 X 42회 / 감사비 50,000원 X 33회
문화소품	1,400 천원	출연료 1,400,000원
역사기행	400 천원	해설사(2인) 400,000원
문학기행	400 천원	해설사(2인) 400,000원
자원봉사자	500 천원	2인 X 5,000 X 5회 X 10월
도서구입비	2,400 천원	12,000원 X 200
운영비	2,500 천원	250,000원 X 10월
자부담	1,240 천원	(10%)
운영비	1,240 천원	124,000원 X 10월

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후원금 예산에 맞춰 도서구입 비용으로 사용한다. 2012년까지는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계간 소식지에 후원금 및 후원 소식을 실어 우편 발송하였으나, 현재는 광주시민센터 전체 소식지로 통합하여 후원금 내역을 보고하여 투명성을 유지한다.

지자체의 지원도 도서관 운영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도서관 리모델링, 운영비, 책구입비, 프로그램비, 자원봉사자비 지원)에 선정되어 2013년에는 12,4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사서 양성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사서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따라 서구청에서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협조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광주지부 회원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학나눔에서 우수문학도서를 분기별로 지원받고 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며 기타 감사비와 문화소품, 역사기행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된다.

4. 기타

개관 당시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의 활동목표는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 자원활동의 기쁨을 배우는 도서관’이었다. 이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성장하는 도서관,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마을도서관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아이숲 발자취

- 2007년 12월 개관
- 2007년 우리동네 문화소품 진행
- 2008년 5월 어린이 청소년 문학기행 진행
- 2008년 청소년 독서모임 시작
- 2008년 도서관 엄마학교 시작
- 2008년 아이숲 책잔치 “책이 있어 행복한 아이들” 개최
- 2008년 “다문화 다함께 우리는 지구촌 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2009년 도서관 품앗이 학교 개최
- 2009년 마을 앞산뒷산 지킴이 ‘금당산 지킴이’ 조직
- 2009년 제1회 빛고을어린이책잔치 개최. (년1회 지속 진행)
- 2009년 다문화가족 문화예술교육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기획 및 진행
- 2010년 어린이 인권평화 한마당 개최
- 2010년 저소득 공부방 문화예술교육 “상상력 먹고 이야기똥 싸기” 진행
- 2010년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전시 “동화나라 만인보” 광주광역시장상 수상
- 2011년 내집앞 마을가꾸기 “금당산에 자연관찰로를 만들어요.” 광주광역시장상 수상
-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네트워크 “신통방통 문화, 별별 이야기” 기획 진행
- 2012년 어린이책 인문학, 세계사 특강, 신기한 과학의 세계 등 도서관 배움터 진행
- 2013년 금당산 숲체험, 그림책 아카데미, 유치원 책읽어주기 활동

아이숲을 일군 초대관장 정봉남

기관 준비부터 기관 후 5년간,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밥글쓰기 교사이자 책읽는공부방만들기 슈퍼바이저로 일하면서 부지런히 동화를 읽고 공부했습니다. 좋은 책 재밌는 책을 보면 내한 읽기 이매워서 소문을 내고, 기방에 담이키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공식 이름도 간단도 없지만 우리집은 언제나 동네책방이었고, 저는 결어대시는 도서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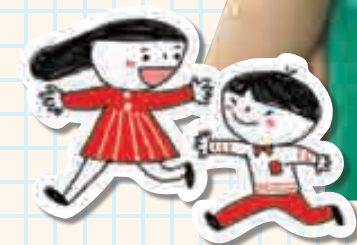
그러던 차에 지역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꿈꾸게 되었고 뜻을 같이하는 엄마들 여섯 명과 함께 도서관 준비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참고 육학부모회, YMCA, 국립공원, 지역노동센터, 어린이도서관 구회 같은 곳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열거보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 문화를 즐기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 막상 어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조용히 지키느라 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없었던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만장일치로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도서관의 시작은 먼저 고민한 몇 사람에서 출발했지만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고 살려나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몫입니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이런 장점을 충분히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살림을 함께 고민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어른들이 있고, 이런 어른들의 품에서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으니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은 자라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서관을 준비하고 문을 열고 운영하는 시간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시간과 몸과 돈과 열정과 재능을 나눠준 분들,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의 꿈, 이 소망들을 대변 대변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도서관을 열고, 자리를 데워주고, 아이들을 반기며 다정하게 책을 읽어줍니다. 도서관에서 키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도서관을 다시 찾아오는 날을 꿈꾸면서, 사람은 떠나고 세월은 가도 작은 도서관이 보여준 가치만큼은 영원히 세상을 향해 밝히는 등불로 자리매김을 바라면서 말합니다.



HAPPY ★ TOGETHER



운영위원회 중심 작은도서관



여우네도서관

마을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농촌지역도서관,
공간은 지자체에서 무상지원

농촌에 위치한 여우네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여 아이들 교육과 문화체험,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는 모범적인 활동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우네도서관은 6명의 도서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했으며 6명의 운영위원들이 도서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식농교육과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식농교육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하기, 숲 놀이, 갯벌, 염전 체험 등의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과 농어촌 체험교육 등이 있다.



뒤뚜르 어린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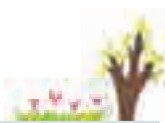
마을엄마들이 운영하는
도서관

춘천의 구도심 후평동에 위치한 뒤뚜르 도서관은 지역의 어린 아이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민들의 정성이 모여 탄생했다. 도서관 운영은 관장과 5명의 운영위원, 여기에 유급 상근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들이 더불어 도서관을 꾸려간다. 많은 프로그램 보다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다.



여우네도서관

농촌에 위치한 여우네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여 아이들 교육과 문화체험,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는 모범적인 활동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우네도서관은 6명의 도서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했으며 6명의 운영위원들이 도서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식농교육과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식농교육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하기, 숲 놀이, 갯벌, 염전 체험 등의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과 농어촌 체험교육 등이 있다.



위치 · 규모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403-4
041-956-2020
면적: 99㎡
장서수: 10,000권
<http://cafe.daum.net/apoyoune>

운영현황

개관: 2008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인원: 6명
회원수: 500명
일평균이용인원: 20명
운영시간: 10시~6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

1. 조성과정

굽이쳐 흐르던 금강 줄기가 서해바다를 만나기 직전 잠시 고개를 들어 숨을 고르는 곳, 너른 평야와 오밀조밀 낮은 산들을 끼고 자리 잡은 평화로운 동네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에는 붉은 벽돌로 아담하게 지어진 여우네도서관이 있다. 여우네도서관에 닿기 위해서는 여우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여우네도서관은 옛이야기 속의 지혜로운 여우처럼 도서관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지식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콘크리트로 꽉 막힌 여느 도서관들과 달리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볼 수 있는 것도 여우네만의 장점이다. 여우네에 오면 개울에 두 발을 담그고 앉아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들을 하나둘씩 세어가며 아이들과 동화책 속으로 상상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다.

논독길, 청개구리 울음소리, 그리고 도서관

마서면 신포리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임에도 도시와 인접해있어 젊은 사람들의 거주율이 다른 마을보다 높은 편이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꼭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책을 빌리러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었고 아이가 없는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2008년 7월, 마을 이장과 부녀회, 청년회 등에 정식으로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농촌지역이 노령화되면서 아이를 낳아도 보육이나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 속에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조차 농촌의 장점을 모르고 도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팔소매를 걷고 나선 것이다.

2008년 8월, 마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6명의 추진위원들이 선임되었고 같은 달 23일, 대전지역 작은도서관인 또마기와 마루, 모퉁이 도서관을 견학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장소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 서천군에서 서천 길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벌였고 이때 세워진 농촌마을 체험장 한 칸을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추진위원들이 활용이 미미한 공간을 도서관으로 사용코자 마을에 건의, 마을총회를 통해서 도서관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합의했다.

도서관 건립 사업이 알려지자 서천군에서 책장 작업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분위기를 돋우었다.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는 도서관건립추진위원들에게 큰 힘이 돼 주었다. 내친김에 10월 4일 책 기증의 날 행사를 통해 수천 권의 책을 모았고 10월 10일에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도서관운영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운영노하우 습득에도 나섰다. 10월 31일, 가칭 ‘아포 행복한 마을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고 11월 15일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마침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2. 운영사례

여우네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이용자가 곧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운영된다. 대표관장과 6인의 운영위원이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쪼개 도서관을 꾸려가는 구조다. 6인의 운영위원은 각각 후원회장과 총무, 소식지 편집담당, 프로그램담당, 대외협력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다. 관장과 운영위원들은 2주에 1회씩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상의하고 결정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인 도서관 지킴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서 일을 돕는다. 인근 마을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도서관 지킴이들은 월 1회 회의를 갖고 도서관과 관련한 정보 및 현황을 공유하며 장서 선정을 비롯해 도서관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낸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장서 구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장서는 이용자들의 구매희망 도서와 운영진들이 선별한 목록을 중심으로 구매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와 환경에 대한 도서 비중을 높게 잡고 있다.

농촌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식농교육의 확산

여우네도서관은 농촌 아이들에게 자신이 자란 곳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우리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아이의 부모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식농교육은 특히 여우네도서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식농교



1. '1박2일 도서관학교'에서
먹을 야채간식 만들기



2. 식농교육 중인 아이들

육은 “농촌 지역의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으며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식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강연과 함께 텃밭 가꾸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의 문제점을 바로보고 바른 먹을거리를 찾는 방법도 알려준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한 먹을거리가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우네도서관은 보다 큰 꿈을 꾸고 있다. 지역 내의 학교와 단체 등과 연계해 다양한 공동체적 마을연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아직 구상단계에 있지만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고 연대하면 보다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과 마을이 이어지고 마을과 학교가 이어지며 농촌과 도시가 이어져 서로의 자원을 아낌없이 주고받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다. 농촌 아이들은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도시로 떠날 필요가 없게 되고 도시 아이들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도시에서 배우지 못한 농촌아이들의 정서를 교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서관을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우네도서관이 자랑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문학여행’과 ‘공동육아 동아리’, ‘여우네 풍물단’, ‘북스타트 책놀이’, ‘생태놀이’, ‘1박2일도서관학교’, ‘역사나들이’, ‘여우네문화제’등

이 있다. ‘문학여행’은 지역 여성들의 문학읽기 모임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 ‘공동육아 동아리’는 36개월 미만의 영, 유아와 엄마가 함께하는 책놀이 모임이며 ‘여우네풍물단’은 마을 사람들로 꾸려진 풍물단으로 매주 화요일에 모여 풍물놀이를 연습한다. ‘북스타트 책놀이’는 취학 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임을 갖는다. ‘생태놀이’는 인근의 자연과 텃밭을 놀이터 삼아 노는 생태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1박2일 도서관학교’는 여름방학에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는 특별프로그램으로 7, 8월에 열린다.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여우네문화제’에서
짚꼬기중인 할머니

어우러지는 ‘역사나들이’는 매년 봄, 가을 한 차례씩 역사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답사 여행이며, ‘여우네문화제’는 매년 가을 추수를 끝낸 뒤 주민들이 모여 한테 어우러지는 풍년마당이다. 이 중에서 특히 ‘여우네풍물단’은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인기 풍물단으로 거듭났다.

3. 재정마련

여우네 도서관은 한미한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천 전역에서 아이와 부모가 찾아와 이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도서관 운영 재원은 후원회비와 외부지원을 통해 마련되는데 후원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후원계좌는 도서관 운영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매달 약정기준을 자동 이체하는 정기후원자는 약 70명 내외며 개인을 비롯해 지역 상가, 등에서 물품이나 도서기부, 재능기부, 기타 후원금을 전해오기도 한다. 후원금은 월 60만 원 선이다. 후원금의 절반 정도는 매달 새 책 구입에 쓴다. 정기적인 외부 단체의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의 비정기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필요한 운영



여우네문화제 포스터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용은 도서관 전용통장을 통해 관리된다. 운영위에서 운영 계획을 세우면 실무단 논의를 통해 자금이 집행되는 형태다. 비정기적으로 충남도와 서천군의 도서관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여우네도서관은 2013년 현재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을 지원받아 마을전체가 문화 마을로 탈바꿈 중에 있기도 하다.

4. 기타

개관 당시 추진위원이었던 6명이 현재도 이탈 없이 운영위원을 맡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개관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운영위원들의 자녀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운영위원들은 도서관을 유아위주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책모임을 구성하고 청소년이 도서관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여우네 발자취

- 2008년 11월 15일 개관
- 2009년 1월 여우네도서관에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기모임
- 2009년 8월 13일~14일 제1회 1박2일 여우네도서관학교
- 2010년 8월 19일~20일 제2회 1박2일 여우네도서관학교
- 2011년 11월 제1회 여우네문화제
- 2011년 7월~8월 제3회 1박 2일 도서관학교
- 2012년 11월 제2회 여우네문화제
- 2012년 1월~12월 제4회 1박 2일 도서관학교
- 2012년 7월 26일~27일 제5회 1박 2일 도서관학교
- 2013년 7월 26일~27일 제6회 1박 2일 도서관학교
- 2013년 8월 16일~17일 제7회 1박 2일 도서관학교
- 2013년 10월 19일 우리 고장 역사나들이
- 2013년 11월 9일 제3회 여우네문화제



뒤뚜르 어린이도서관

춘천의 구도심 후평동에 위치한 뒤뚜르도서관은 지역의 어린 아이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민들의 정성이 모여 탄생했다. 도서관 운영은 관장과 5명의 운영위원, 여기에 유급 상근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들이 더불어 꾸려간다. 많은 프로그램 보다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다.

위치 · 규모

춘천시 후평3동 875-12
070-8237-8754
면적: 117㎡
장서 수: 6,000권
<http://cafe.daum.net/kids-lib>

운영현황

개관: 2008년
회원 수: 951명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일평균이용인원: 20명
운영주체: 운영위원회
운영시간
운영인원: 상근자 1명과 자원활동가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 조성과정

도서관명칭인 뒤뚜르는 후평동의 옛 이름에서 나왔다. '뒤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또한 뒤뚜르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 삶을 살찌는 소리이기도 하다. 뒤뚜르, 뒤뚜르, 춘천시 후평3동에 위치한 뒤뚜르에서는 오늘도 쉼 새 없이 이런 소리가 창문을 비집고 흘러나온다. 학교가 끝난 후 곧장 집으로가 TV를 보거나 컴퓨터게임을 하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도서관에서 친구도 사귀고 함께 독서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7개월의 준비기간에 더해진 다양한 기부 손길

춘천시 구도심에 위치한 후평동 일대는 오래된 골목이 그대로 살아있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지만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삶도 팍팍했다.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에게 책을 읽힐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기를 오래 전부터 바라왔고 그 결과 후평3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뜻이 모이면 길이 열리는 법이다. 춘천시민연대 어린이도서관분과 회원들과 시의원, 지역서점 주인 등이 의기투합했고 이웃한 담작은도서관 관장도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자 일에 속도가 붙었

개관식 풍경 및 건물외관



다. 도서관학교를 열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림책 공부모임’을 만들어 엄마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도서관 건립을 위한 발걸음을 하나하나 시작했다.

7개월여 준비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주민센터에서 ‘희망 갖기 모임’을 갖고 예산마련부터 장소 선정, 장서 구비 등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다. 후원계좌를 운영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무엇보다도 일일호프를 열어 천만 원의 수익금을 마련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돈으로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고, 500만 원은 도서관 시설비용과 도서 구입비로 썼다. 주민이 선뜻 내준 도서관 공간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벽지가 발라지고 내부가 꾸며졌다. 서가는 아빠들이 나서서 썼고 칠도 직접 했다. 미술선생님이 재능 기부로 벽화를 그려주었다. 서울 지역의 작가 한 분이 책수레를 직접 제작해 주기도 했다. 도서관 공간은 어린이책 공간과 어른책 공간, 동아리방으로 꾸며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 하나부터 지역 주민의 손에 의해 아이들의 문화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2. 운영사례

개관 초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꾸렸다. 이후 춘천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순회 사서를 일정기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2012년 3월부터 월 50만 원에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 오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꾸리고 상근직원은 오후에 출근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관여한다.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운영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운영계획과 예산결산 등은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총회에는 정회원이 참여하며 정회원은 후원금을 내는 도서관이용자로 구성된다. 장서의 경우 개관당시 1,800권으로 시작 현재 6,00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격주로 열리는 ‘그림책공부모임’이 눈에 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그림책공부모임’은 엄마들이 먼저 책을 읽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무엇보다도 엄마들의 자녀 양육태도가 달라져 내 아이를 돌보는데 머물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엄마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한 달에 한번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읽

야외활동중인 아이들



기’ 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매주 열리는 ‘퀼트모임’은 엄마들의 사랑방이자 수다모임이다. 어린이를 위한 ‘발도르프인형만들기’ 시간은 어린이 바느질모임이다. 월1회 ‘산나들이’ 시간을 통해 계절별로 화전만들기, 솔방울을 이용한 만들기 등 생태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진행하였으나 부근에 초등학교에서 생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2013년에는 일시 중지된 상태다.

2013년에는 춘천에서 매년 열리는 마임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마임공연팀이 뒤희르도서관을 찾아와 낮에는 마을놀이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밤에는 뒤희르도서관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시민활동가들과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외에도 뒤희르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손수레모양의 책수레를 들 수 있다. 예쁜 그림이 그려진 책수레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인기 만점 아이템이다.

3. 재정마련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건물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이중 30만 원은 춘천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35만 원 중 5만 원은 도서관에서 부담하는데 건물 주인이 돈을 받아 다시 도서관에 기부한다. 도서 구입 및 기타 물품 비용 등 그 외의 도서관운영비는 후원금으로 마련하는데 5,000원 이상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80명 내외이고, 월 평균 80~9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건넨다. 이중 도서관 이용자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50% 정도다. 개관 초기, 안정된 운영을 위해 월 3만 원을 후원하는 이사진을 15명 구성하면서 초기 재정문제를 해결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에어컨을 구입하는 등 매월 정해진 운영 경비외의 지출항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벼룩시장을 열거나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여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 하는 등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 2013년의 경우 공지천에서 열린 지역축제에 일일 먹을거리 장터를 열어 수익금으로 책장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도서관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도서관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7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2013년의 경우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아이들이 봄비는 여름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원해주고 순회 사서를 지원하기도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은 인터넷 카페와 소식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1. 벼룩시장 개최
2. 일일주점



4. 기타

뒤뚜르 생각

어린이들은 늘 공부에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다. 학교나 문화센터, 도서관에서까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많은 프로그램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도서관 본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조용한 가운데 변화를 꿈꾸며 마을 한구석에서 작지만 도서관의 역할을 해나가고 싶은 바람, 그것이 뒤뚜르의 생각이다.



뒤뚜르 발자취

- 2008년 8월 개관
- 2008년 9월 이사회및 운영 위원회 결성
- 2009년 책방도깨비(아이들 그림책 모임), 책수레 모임 시작
- 2010년 춘천 작은도서관 협의회 가입
- 2010년 작은도서관 책축제 참가, 도서관 학교 개최
- 2011년 호반 초등학교 책축제 참가
- 2012년 뒤뚜르 벼룩시장 개최
여름방학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 행사

마을이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

지역주민들의 십시일반기금으로 조성,
주민이 운영하는 도서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조성한 도서관이다.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도서관학교를 열어 작은도서관에 대해 공부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하였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10명의 운영위원과 5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 특히 개별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데 주부미니어동아리 '왁자지껄'은 구청과 지역 언론기관에 여러 차례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트렌드로 부상 중인 인문학을 모토로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 동아리 '개맹이'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이 마을 만들기에 적극참여
마을학교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를
주도함

성대골마을의 보물 1호로 자리잡은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은 상도동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주민주도형 민간 도서관이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소로도 쓰인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목표로 2011년 겨울 시작한 성대골 절전소 프로그램은 환경의 날을 맞아 2012년 5월 서울시로부터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아띠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조성한 도서관이다.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도서관학교를 열어 작은도서관에 대해 공부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하였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10명의 운영위원과 5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 특히 개별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데 주부미디어동아리 '약자지킴'은 구청과 지역 언론기관에 여러 차례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트렌드로 부상중인 인문학을 모토로 그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 동아리 '개맹이'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위치 · 규모

대구시 동구 율하동로 23길 8-1 2층
053-961-3307
면적: 112㎡
장서 수: 10,000권
<http://cafe.naver.com/dgbook>

운영현황

개관: 2008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운영위원회
운영인원: 50명
회원 수: 430명(2013년 8월 기준)
일평균이용인원: 30명 내외
운영시간
월 ~ 토 10:00~17:00
일요일 13:00~17:00

1. 조성과정

정부고속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대구 동쪽에 이르면 '반야월'이라는 고풍스런 지명을 만날 수 있다. 반야월은 '백제군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치던 왕건이 문득 고개를 드니 반달 하나가 외롭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동대구 인터체인지 근처에 자리한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는 2008년 10월 개관 이래 대구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반야월 지역 주민들의 귀와 눈 역할을 하며 지혜의 빛을 전해주고 있다.

아이들이 10분 안에 달을 수 있는 도서관

반야월에 속한 대구시 안심동 일대는 개관 당시만 해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다(2013년 현재는 혁신도시를 비롯해 율하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어서 인구밀도도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어린이의 수도 그만큼 많았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다보니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웃한 효목도서관, 동부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씩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자녀에게 책을 읽히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부모들은 걱정하고 먼 도서관을 찾아가야 하거나 도서 구입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그 주축은 장애 · 비장에 통합 한사랑어린이집 학부모모임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회원들이었다. 특히 2005년부터 이 지역에 풀뿌리주민자치운동을 펼쳐오던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사무국장을 파견, 반야월지역에 마을작은도서관을 인큐베이팅하는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도서관 건립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

- 2007.02.14 1차 모임
- 2007.03.25 2차 모임(위원장선출: 서창환)
- 2007.04.19 3차 모임
- 2007.05.01 카페 개설(<http://cafe.naver.com/dgbook>)
- 2007.05.05 동구어린이날 큰잔치 참가(수익 608,450)
- 2007.05.23 4차 모임(학부모 참여 도서관학교 논의)
- 2007.06.16 5차 모임
- 2007.07.09 학부모 도서관학교 1,2강좌 개최
- 2007.07.10 학부모 도서관학교 3,4강좌 개최
- 2007.08.17 학부모교실 강좌(김태영 강사)
- 2007.09.15 학부모교실 강좌(이은주 강사)
- 2007.09.11 순수민간주도형자치마을만들기사업선정
- 2008.01~02 반야월지역 도서관 주민욕구실태조사(980명)
- 2008.01~02 제2기 학부모 도서관학교 개최
- 2008.01~04 기금마련 '책 먹는 돼지'분양, 홍보캠페인 진행
- 2008.01~02 타 지역 어린이도서관 탐방

적극 동참했던 지역 주민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였다. ‘아이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 이를 통해 지역에 팽배한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꿈을 지닌 청소년으로 자라나 엄마와 아이들이 다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주민모임 발족과 종자돈 마련

2007년 2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반야월지역에 모여 도서관 준비모임을 발족시켰다. 도서관준비모임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사업을 통해 그해 3월부터 한사랑어린이집 학부모회와 함께 제1기 학부모도서관학교, 교육강좌, 성교육강좌를 개최했다. 그해 7월, 여러 강좌에 참여했던 지역학부모들과 함께 후속모임으로 ‘반야월 어린이 도서관을 준비하는 주민모임(cafe.naver.com/dgbook)’을 꾸렸으며 5월 5일 동구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맞아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을 알리며 기금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반야월 주민들의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대구시의 순수민간주도형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2007. 11~2008. 2월)되면서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도서관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사업, 주민홍보활동 및 주민설문조사, 기금 모으기 인프라구축활동 등을 진행했다.

도서관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자리할 위치 선정은 물론 도서 구입을 비롯하여 기타 시설비도 만만찮다. 반야월 주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2007년 한 해 동안 준비 모임 회원들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구에서 주최한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가하여 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섰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내놓은 회원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기부사이트를 통해 쿵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500여 만 원의 종자돈이 모아졌다.

탄력을 받은 준비모임 회원들은 ‘삼겹살 먹고 기부도

후원금 모금을 위한 행사



하고’라는 도서관 기금마련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이날 행사를 통해 650만 원의 목돈을 모았다. 행사에는 3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십시일반 푼돈을 내놓았다. ‘책 먹는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기도 했다. ‘책 먹는 돼지저금통’은 지역 주민들에게 1천 개 이상 분양되었고, 300개가 넘는 저금통이 되돌아왔다. 지역에 뿌리를 둔 병원과 학원 등 개인 사업장에서도 선뜻 기부금을 내주었다. 지역 청년 단체에서도 적극 준비를 도왔다. 대구시가 공모한 순수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에 선정돼 900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았다. 말 그대로 ‘티끌 모아 태산’을 쌓은 셈이다.

주민의 손에서 주민의 손으로

타 민간 도서관 탐방을 통해 조성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준비모임에 참여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주민모임 구성원들은 2008년 1월 부산 반송 느티나무 도서관을 시작으로 진해 기적의 도서관, 대전의 짜장도서관, 짝꿍도서관, 또바기 어린이도서관 등을 찾아다니며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서가의 디자인을 비롯해 운영 프로그램, 소모임 결성과 운영, 운영조직과 후원조직 결성에 대한 조언, 자원봉사 활용 방안, 도서 선정과 구입, 주민 도서 기증 등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는 것도 준비모임 회원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에는 약 800여 명의

주민이 의견을 냈다. 총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주민조사는 마을도서관에 대한 주민인식을 묻는 질문과 도서관에 대한 주민 호응도, 관심 프로그램, 비치를 원하는 도서 목록 등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의 이름을 함께 공모하였고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 의지를 묻는 항목 등을 넣어 주민이 스스로 도서관의 주인임을 알렸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서관 학교를 열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도 나섰다. 2007년 7월 9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외부 강사를 초청,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그림책 고르기’와 읽

아이들을 위한 제1기 학부모도서관 학교(2007, 7월 9일, 10일)

- 1강좌**
우리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이옥주/어린이도서연구회
- 2강좌**
그림책 고르기와 읽어주기 이옥주/어린이도서연구회
- 3강좌**
마을도서관 만들기 사례와 운영 신남희/새벗도서관 관장
- 4강좌**
옛이야기 들려주기 서정오/동화작가

어주기' 등의 유익한 주제로 강의를 개설했다. 안심1동 동사무소 지하 공간을 빌려 개설한 학부모를 위한 도서관 학교에는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8월 17일, 9월 15일에는 학부모 교실을 열어 '칭찬스킬'과 '학부모 모성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개설했고 2008년 1월 2회에 걸쳐 외부 강사들을 초빙, 글쓰기 노하우와 어린이 도서관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학부모 도서관 학교 2기 강좌를 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2월에는 도서관학교를 통해 만난 주민들이 '반야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주민모임'을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마침내 도서관 문을 열 수 있었다.

눈높이를 낮춘 어린이 친화적 인테리어

도서관 시설을 할 때 주민모임 회원들이 중점을 둔 사항은 아이들과의 친화성이다. 어디 서든 걸어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취지에 따라 지금의 자리(대구시 동구 신기동 547-7 2층)에 안착했다. 인근 초등학교와도 가까운 곳이다. 아 띠도서관이 문을 열기까지 도서관의 위치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바닥공사와 도배, 벽화 등의 인테리어, 도서 기증과 구매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보 태졌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이용 공간임을 감안, 좌식형태의 책상과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책장을 구비하였다. 장서 구성에 있어서도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성에 맞 게 어린이그림책에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도 두루 이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소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서적, 역사 관련 콘텐츠들 을 구비하였다.

2. 운영사례

보조사서 50명, 주민들 스스로 꾸리는 도서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관장과 사무국장, 총무·회계 및 사서를 포함하여 50여 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모든 운영인력이 자원봉사로 운영에 참여하며 이들 대부분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엄마들이다. 관장은 외부 강의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소집, 카페 관

자연스런 분위기의
정기 총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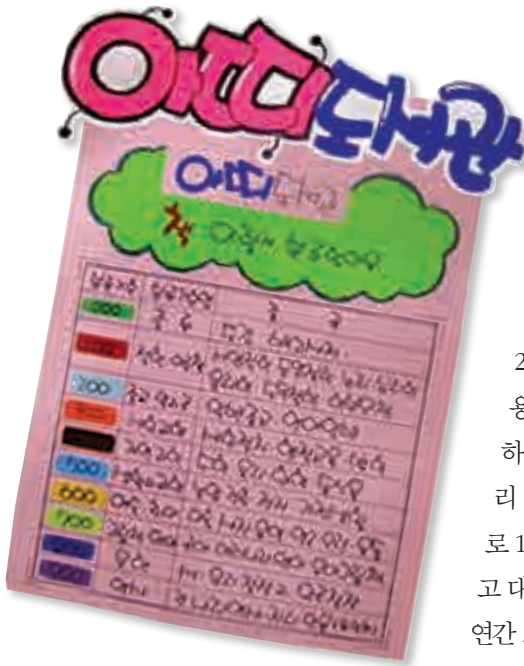
리, 물품 구매, 소식지 발송 등을 담당하고 사무국장은 신간 입력 및 물품구매, 도서관 행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총무는 주문과 자금관리 및 결산 등을 맡고 그밖에 주문목록 작성 과 선별, 소식지 편집, 서가 관리 등 대부분의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얹혀 업무 를 분담한다.

자원봉사자는 소식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수시로 모집한다. 2013년 하반기 현재 56명이 자 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5명 정도가 거의 매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아를 대동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던 회원들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 뒤 자신이 받은 것 을 나누기 위해 봉사자로 나서기도 한다. 도서관을 책임지는 관장 역시 지역 주민들의 몫 이다. 현 도서관 책임자인 김연희 관장의 경우에도 개관 초기부터 사서로 오랫동안 봉사 를 해오던 차에 2011년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관장으로 선임되었다.

도서관 실무는 운영위원회가 책임진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관장, 사무국장, 사서팀장 및 각 동아리의 팀장을 비롯해 도서관 운영이나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서봉사자 5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 1회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사서회의 직전에 소집되며 모든 운 영위원은 사서봉사자를 겸하고 있기도 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결 정(비품구입, 지역행사 참여 여부 등), 회원관리, 운영 프로그램 논의, 운영자금, 도서관 대 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기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올라 오는 주민 건의 역시 적극 도서관 운영에 반영한다.

업무 분담표

분류		업무	담당
도서관리	신간	목록작성, 선별	개맹이팀, 사서
		주문	총무
		입력	사무국장,사서팀장
	기증도서	선별	개맹이팀
재무·회계		영수증 처리, 결산	총무
서가관리		청구기호별 도서정리	사서
물품관련		물품체크 및 리스트작성	담당자
		물품구매	관장,사무국장
회원관리		CMS관리	
		CMS연체회원관리	사무국장
		신입회원관리	
자원봉사관리	사서	등록,자원봉사관리 (동구자원봉사센터)	담당자
	학생	예약, 확인서 출력	
소식지		편집	미디어팀
		주소출력	담당자
		출력, 발송	관장, 미디어팀장
카페관리		카페지기	관장
		부매니저	부매니저
회의관리	운영위	문자발송,시간조율	관장
	사서회의	문자발송,시간조율	사서팀장
	문자발송	도서관 행사, 강좌	사무국장
프로그램관리	자체 강좌	접수, 수업료	당일 사서
	외부 강좌	섭외, 조율	관장



도서 분류표

체계적인 장서 관리

책을 관리하는 것도 운영위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개관 초기에는 책이 많지 않아 도서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초기에는 ‘책꽂이’라는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띠지(예: 초록: 그림책, 청색: 청소년, 빨강: 성인, 철학 등)만 분류하여 색깔별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장서 수가 만 권을 넘기게 되면서 체계적인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그러던 차에 2012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코라시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통합분류시스템에 의한 분류법으로 책을 정리하고 있다. 코라시스(KOLASYS-NET)를 통해 대출과 반납, 연체관리 일체가 이루어지는데 대출기간은 10일이며 대출 권수는 10권으로 1회 반납 연기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대출 정지 기간을 두지 않고 대출도서를 완납할 시 대출을 허용한다.

연간 도서관구입비는 300만 원 내외이며 도서 구입 통장을 따로 두어 관리한다. 두 달을 주기로 50만 원 선에서 신간을 구매한다. 도서 구입비는 공모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기도 한다. 도서는 지역 서점

및 인터넷 서점, 헌책방 등을 이용한다. 장서 선정은 ‘추천도서목록’ 파일을 비치해 회원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신문 서평이나 권위 있는 도서단체의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계층은 유아나 아동을 동반한 부모, 초·중학생 및 엄마들이다. 그밖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 단체로 방문하기도 하며 초등학생은 학교 후나 주말에 주로 이용을 하고 중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이용률이 높지만 학기 중에는 대부분은 엄마들이 필요한 책을 대출해가는 형태로 이용된다. 단체 방문을 제외한 도서관 이용자는 하루 평균 30명 내외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호흡

아띠도서관에서는 매 년 10여 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언제나 인기



다. ‘전통놀이감 만들기’같이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로봇교실’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인다. 학부모를 위한 강좌도 매년 빠지지 않고 열리는데 ‘학부모 성교육’, ‘독서지도사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신문 만들기’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문학 교실’은 아띠도서관이 단순한 어린이 도서관을 넘어서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시설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때론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강의의 다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2012년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어린이가 만드는 지역신문’ 프로그램에 130만 원을 지원받은 것 등이 대표적이다. 2011년 ‘독서지도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는 동부도서관에서 강사비 일체를 지원받았으며 2013년 ‘그림책 읽기와 심화’를 진행할 당시에는 대구시 동구청에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동구청에서는 ‘우수동아리 선정’ 등의 과정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수십 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1. 작가초청 강연장면
2. 마을 조사단 활동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지원 내역(2012 · 2013년)

년도	프로그램명	지원단체	지원내용
2012	도서지원금	아름다운재단	5,000,000원
	울리볼리관	다음세대재단	시스템일체
	어린이가 만드는 지역신문	(사)동구자원봉사센터	1,300,000원
	시창작	서부도서관	강사비
	역사.논술지도사	대구여성회관	강사비
	부모 성교육	동부도서관	강사비
	우수동아리 선정-인문학팀	동구청	400,000원
2013	우수동아리 선정-주부미디어팀	동구청	400,000원
	문학나눔홍보활동(작가초빙)	문학나눔	작가: 300,000원
	그림책 읽기와 감상 기초	동부도서관	강사비
	그림책 읽기와 감상 심화	동구청	프로그램비
	우수동아리 선정-주부미디어팀	동구청	500,000원

주부 미디어팀 <확지지깅>의 소모임 활동

- 2009년 디카 수업·무비 메이커
- 2010년 동영상 기초·캠코드
- 2010년 mbc :열린tv희망세상" 우수프로그램상 수상
- 2011년 mbc :열린tv희망세상" 시청자 참여상 수상
- 2012년 동구청 지정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선정
- 2012년 어린이기자단 공모사업선정, 진행
- 2013년 동구청 지정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선정
- 2013년 아띠 어린이기자단 "좋은 친구" 진행 · 운영

인기 높은 동아리 활동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일구어진 아띠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기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및 지역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토론 모임이 열리기도 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이나 방학 특강도 수시로 열린다. 독서멘토링 봉사활동(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자원봉사)과 학부모교육과 문화강좌 등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특히 도서관을 만들었던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주부미디어

아띠도서관의 지역행사	
· 5월	어린이날 행사
· 6월	울하 한마음 축제 참가
· 8월	대동계 야유회
· 9월	울하 청소년 축제 참가
· 10월	반야월 마을 축제 참가
· 11월	땅이야기김장나누기
· 12월	지역연합-연탄나눔
· 12월	지역단체 연합 송년회



미디어 교육 장면

모임 ‘왁자지껄’은 지역 언론기관에 여러 차례 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되는 등 인기가 대단하다. 인문학 동아리 ‘개맹이’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정된 인문학 도서를 놓고 회원들끼리 열띤 토론을 펼친다. 아띠도서관이 주축이 된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 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5월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하여 6월의 울하 한마음축제, 8월의 대동계 야유회, 10월의 반야월마을축제 등을 통해 지역민이 하나가 된다. 11월엔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쳐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김장을 나누고 12월엔 연탄 나눔 행사도 빠지지 않는다. 12월엔 반야월 지역단체들과 연합하여 송년회를 개최하며 한 해를 마감한다. 또한 지역 내 방과 후 마을학교와 유기농 매장, 지역 대동계, 주택 공동조합, 기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 재정마련

대부분의 운영비는 회비를 통해 충당

모든 사서는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별도의 인건비 지출은 없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도서 구입비 및 프로그램 개발,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전기, 전화료 등 매월 수백 만 원의 지출 요인이 발생한다. 아띠도서관은 이 문제를 회원들이 매월 3,000원 이상 CMS로 납



후원 돼지저금통

아띠도서관 재정내역(2012년)

수입		지출	
작년이월금	1,308,486	사업진행비	1,167,130
회비수입	9,810,750	지급수수료	810,150
후원금수입	2,810,830	사무실임대료	3,605,400
기타수입	82,852	물품구입비	2,172,390
이자수입	631	소식지 발송비	403,260
		전화통신비	533,600
		수도광열비	1,663,760
		관장업무추진비	350,000
		문자발송비	500,000
		연대사업추진비	390,000
		회비과오납	59,500
수입합계	14,013,549	지출합계	11,655,190
2012년 수입과 지출차액		2,358,359	

부하는 월회비와 특별 후원금, 비정기 행사 수익 등을 통해 충당한다. 아띠도서관 회원은 2013년 현재 430여 명에 이르며 정회원, 도서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CMS 계좌이체를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회원이다. 도서회원은 최초도서기금 만 원을 내고 분양된 돼지저금통에 모금을 하는 회원이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은 후원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은 특별회원으로 분류되어 후원금을 내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벼룩시장 행사, 음식마당, 돼지저금통 배부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며 대부분의 운영비는 후원금을 통해 충당된다.

2012년의 경우 총 1,4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중 후원금이 980만 원으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후원금이 사실상 도서관 운영의 핵심 자금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지출 항목 중에서는 사무실 임대료가 36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밖에 물품 구입비(2,172,390원)와 사업진행비(1,167,130원), 수도광열비(1,663,760원) 등의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띠도서관 재정운용 예시(2013년 8월 ~ 2013년 9월 아띠 재정운용결과)

수입				지출			
	항목	2013. 8	2013. 9		항목	2013. 8	2013. 9
이월금	이월금	1,818,545	2,069,035	인건비	업무지원비	50,000	50,000
	CMS회비	849,190	875,560		사무실임차료	300,500	300,300
회비	자동이체회비	45,000	95,000		물품관리비	15,200	15,200
					정보통신비		99,490
수입				일반	사무관리비	105,750	43,650
					지급수수료	64,900	64,900
	소계	894,190	970,560	관리비	수도광열비	147,350	143,030
	정기후원금	150,000	150,000		기타경비, 세금		
	특별후원금		150,000		도서관입비		
	후원행사			도서비	도서관리비		
후원					도서기금적립금		
수입					소식지발송비		
					소식지제작비		
	소계	150,000	300,000	홍보비	문자발송비		
	이자수입				기타홍보비		
기타	잡수입		145,000		연대사업비		439,550
	소계		145,000		일반사업추진비		19,000
수입	일반사업수입			사업	사업출장비		
	연대사업수입				회원조직사업비	100,000	100,000
사업	벼룩시장수입			집행비	후원행사비용		
	기타사업수입				기타사업집행비		
수입	소계			기타	잡손실	10,000	
	합계	2,862,735	3,484,595		합계	793,700	1,275,120

가목의 단비 같은 외부 지원금

각종 후원 사업을 통한 자치단체의 지원도 도서관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아띠도서관은 2009년 대구시 우수문고에 선정되어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2011년 대구시 최우수문고에 선정되어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2년에는 대구시 동구청 우수문고 선정되어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에서 작은도서관 도서관구입비를 500만 원 지원해 주기도 했다. 2013년에도 대구시 동구청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은 도서관 명의의 통장을 개설, 관리되며 매월 진행되는 사서회의, 운영회의, 정기총회에 그 내역이 보고되고 회원들에게는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결산보고가 이루어진다.

지자체의 주요 예산 지원 내역

년도	단체	지원 및 협력내용	예산지원(원)
2009	대구시	우수문고 선정	5,000,000원
2011	대구시	최우수문고선정	5,000,000원
2012	대구시 동구청	우수문고 선정	3,000,000원
2013	대구시 동구청	작은도서관지원사업	2,500,000원

소식지표지



4. 기타

도서관을 홍보하여 지역민들이 더 많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에도 운영자들의 노력이 더해진다. 도서관은 홈페이지 운영이나 소식지 발간, 지역 행사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며 도서관을 알린다.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한편, 대구CBS, 대구MBC, 대구평화방송, KBS TV,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의 지역 언론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아띠도서관은 지역민의 관심을 토대로 ‘사립공공도서관’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한데 사립공공도서관에 지정되면 약간의 운영자금과 도서관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사립공공도서관이 되려면 264m² 이상의 공간과 건물 임대료를 비롯해 유지비와 운영비 일체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영진들은 '사립공공도서관 기금마련'을 위해 돼지저금통 분양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아띠 발자취

- 2008년 10월4일 개관
- 2008년 10월 창립총회
- 2008년 11월 대구시장님 방문
- 2009년 대구시 우수문고 선정
- 2009년 (사)동구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독서멘토링(다문화, 장애인, 독거노인)
- 2009년 대구시 자원봉사 우수상 수상
- 2011년 대구시 최우수문고 선정
- 2011년 6월 2차 정기총회 -운영진 교체
- 2012년 동구청지원 우수동아리 선정(개맹이, 왓자지껄)
- 2012년 (사)동구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선정-어린이가 만드는 지역신문
- 2012년 아름다운재단 작은도서관 도서기금 지원 사업 선정
- 2012년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관 선정
- 2012년 동구청 우수도서관 선정
- 2013년 동구청지원 우수동아리 선정 (왓자지껄)
- 2013년 문학나눔 모니터활동 선정-작가초빙(이미애작가- 할머니의 레시피)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성대골마을의 보물 1호로 자리잡은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은 상동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주민주도형 민간도서관이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소로도 쓰인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목표로 2011년 겨울 시작한 성대골 절전소 프로그램은 환경의 날을 맞아 2012년 5월 서울시로부터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치 · 규모

동작구 상도4동 263-8
02-817-6684
면적: 25㎡
장서 수: 7000권
<http://cafe.daum.net/SDGcommunity>

운영현황

개관: 2010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성대골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인원: 14명
회원 수: 150여가정 300명
일평균이용인원: 30~40명
운영시간
평일 10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1.조성과정

국사봉 아래 오롯이 자리 잡은 상도 3, 4동은 통상 성대골로 불린다. 별로 특별할 것 없던 이 동네에 몇 년 전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생겨나더니 마을학교도 생겨나고 절전소도 생겨났다. 2012년 서울시에 의해 에너지 시범마을로 지정 되면서 새삼 사람들의 관심도 끝었다. 시골도 아닌데 마을에 목공소도 생겨나고 마을 카페도 운영된다. 외지에서 방문객이 찾아들고 카메라를 든 출사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동네다.

작은 동아리, 도서관의 불씨를 심다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은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2009년 봄, 상도3동 주민센터에 풀씨모임이라는 동아리가 생기면서 지역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풀씨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모여 책도 같이 읽고 마을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도 하는 5명 내외의 작은 모임이었다. 지역을 위해 뜻 깊은 일을 찾던 풀씨모임에서 꿈



도서관 내부 모습

틀이(지렁이)를 이웃 주민들에게 분양해주며 지렁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다. 다음 해 2010년 7월 상도3동 중앙에 위치한 빙수골 공원에서 지렁이축제를 열기도 했다.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로는 처음이었다. 8월에는 상도4동 도화공원에서 주민 행사를 이어갔다.

풀씨모임에서 활동하던 김소영 씨가 희망동네(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를 알게 되면서 회원들은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된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만들기'가 그것이다. 김소영 씨는 주민추진위 대표를 맡아 리플릿을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도서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처음에는 괜한 짓을 한다며 말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트 점장님이 1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칠순잔치 한복 맞출 돈 100만 원을 선뜻 내놓은 할머니, 마을 약사가 환폰 두폰 모금한 돈 등, 도서관 건립을 위한 종자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일찾집도 꾸리고 지자체로부터 도움도 받았다. 그 결과 2천만 원의 초기 종자돈이 모아졌고 여기에 여러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마침내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2. 운영사례

도서관은 주민들로 구성된 14명의 운영위원들을 통해 운영된다. 도서관 지킴이(관장)도 자원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개관 직후인 2010년 11월 발족되었으며 운영위원 이외에 1명의 고문을 더 두고 있다.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월~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회원은 이용자와 회원으로 구분된다. 도서관에 오는 모든 방문자가 이용자이며 도서 열람과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회원은 매월 5,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적극적인 이용자로 도서 대출과 특정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 대출은 회원당 3권으로 제한하며 대출 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출일은 최대 7일이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 한권의 릴레이'는 주머니에 책을 한권씩 넣어 릴레이로 돌려가며 읽는 프로그램이다. 마을공원에 책을 펼쳐놓고 읽어주기도 하는 '공원책잔치', 각자 책을 만들어



1. 그림자상상극공연장면



2. 절전소

보는 '나만의 책 만들기'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그밖에도 '성대골마을장터', '성대골절전소' 등의 프로그램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모임으로는 '책읽는 엄마들', '딩가딩가 기타교실', '에너지자립마을 공부모임', '들썩들썩 유랑극단'이 있다. 엄마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 '그림자상상극장'은 인근 초·중학교에서 공연을 펼칠 정도로 지역민에게 인기가 높다.

에너지자립마을을 목표로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 가운데 하나가 성대골 절전소다. 성대골 절전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탄생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화석연료, 온실가스 등과 관련된 여름 방학 특강을 기획했고, 녹색연합과 함께 특강(7회)과 워크숍(5회)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실천 의지가 쌓이면서 2011년 12월 '착한에너지지킴이' 15명을 선발, 도서관 한쪽 벽면에 회원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표시해 절전한 양만큼 새로운 전기를 생산했다고 표시하는 절전소를 꾸미게 되었다.



에너지축제 퍼레이드 장면

성대골 절전소에서는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절약 캠페인을 벌여왔다. 운동 초기 50가구 이상이 절전 운동에 참여해서 매달 800kWh이상 절감했다. 어린이도서관 인근 학교 두 곳과 어린이집에도 절전소가 설치되는 등 절전소 운동이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2년 5월, 서울시에서 주는 서울환경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대골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겠다는 이들의 목표는 제1회 성대골 에너지 축제로 이어졌다. 성대골은 2012년 8월 서울시 에너지 자립 시범 마을로 선정됐다.

성대골 주민들은 서울시와 더불어 성대골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꾸미고 관광코스화 할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건물 단열을 위한 틈새 바람 잡기운동과 조명 교체 등을 통해 마을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동네 공원과 학교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성대골 도서관에서는 2013년 10월, 도서관 엄마들이 주축이 돼 독일 에너지 자립마을을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약 30여 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독일 남부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관련 기관과 마을, 관공서 등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선진 에너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작은도서관 하나가 지역 사회 전체를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다.

3. 재정마련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면 1회 3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다. 회원은 총회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자원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디어 제공 등의 자격을 얻는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엔 약 200가정 이상의 주민들이 월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내는 후원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회원들의 회비는 월임대료 등으로 사용된다. 회원에게 부담을 덜 주기위해 회비 인출은 누적이 되지 않는다. 매월 들어오는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의 한 달 최소 운영비는 130만 원이며 부족한 금액은 마을장터, 프로그램운영, 공연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4. 기타

성대골 발자취

- 2010년 1월 추진위원회 결성
- 2010년 10월 개관
- 2011년 1월 소식지 '성대골 소식한마당' 창간
- 2011년 1월 제1회 마을장터 개최
- 2012년 4월 성대골마을학교 개교
- 2012년 4월 성대골에너지센터 개소
- 2012년 5월 서울시 환경상 대상 수상
- 2012년 8월 제1회 성대골 에너지 축제
- 2012년 8월 서울시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지정
- 2013년 5월 성대골 에너지카페 '해바라기' 탄생
- 2013년 10월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기업 [마을닷살림] 선정



성대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소영 관장

개관 때부터 관장을 맡아 지금까지 성대골 도서관을 일궈오다가 금년을
끝으로 2대 관장을 선임하고 앞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담당할 예정
이라고 들었다. 도서관이 제 2기 관장체제를 맞이하는 의미와 앞으로의
도서관 운영방향은?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마을 전체로 공동체 문화가 확산
돼 기쁘게 생생하다.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기후변화 운동은 작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가운데 하나로 특별한 선례를 남겼다고 생생하다.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서관
과 분류해서 별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도서관은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진화해나
갈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 계기와 운영을 하며 느낀 점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쉽게 오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 꿈이 실현된 것이다. 도서관의 역
할이 많았지만 어린이도서관은 특히 마을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사랑을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운영과정
에서 정주의식 없이 주민들의 이주가 잦은 도시에서 회원의 회비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
겨운지 알았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도 안타까
운 우리의 상황이다.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도서관 운동이 성공하려면 롤모델이 되어
서는 안 된다고 생생하다. 향후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작은도서관은 지역에 밀착해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도적 장이 가능한 곳이다. 이런 현상은 전국 어디서나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딘가 누군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곳에 동원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호가 부여되어



HAPPY★TOGETHER

행동하는 시민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도서관 운동을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해보는
시련만 할 수 있겠다.

작은도서관을 하는 분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이 초기에 현수막이나 축제 등에서 자주 썼던 슬로건이 있다. '마을을 품는
도서관, 도서관을 품는 마을, 도서관이 있는 마을 성대골', 즉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의 중심에 있어
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굿모닝도서관

대표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 사례로 거듭난 굿모닝도서관은 입주민들의 노력 속에 아파트 단지 내 비어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관장과 무급자원봉사자들이 하루 4시간씩 교대로 활동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매월 최소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봄싹도서관

봄싹도서관은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이 비어 있던 관리동 건물 2층을 도서관으로 꾸미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직원을 두고 자원봉사자들이 뒤를 받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팔판 작은도서관

팔판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련한 '겨울방학 재미교실'을 통해 여러 사람의 꿈이 더해져 탄생한 작은 도서관이다. 관장과 사서 및 운영위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운영상의 문제를 의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아파트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살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문턱 없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굿모닝도서관

대표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 사례로 거듭난 굿모닝도서관은 입주민들의 노력 속에 아파트 단지 내 비어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관장과 무급자원봉사자들이 하루 4시간씩 교대로 활동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매월 최소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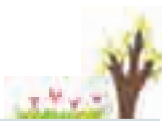


위치 · 규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문굿모닝힐 5차 504동 1층
031-889-2715
면적: 180㎡
장서수: 15000권
www.gmlib.com

운영현황

개관: 2008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아파트)
운영주체: 동문굿모닝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인원: 26명
회원수: 975세대
일평균이용인원: 70명
운영시간
화요일(13:00~20:00)
수, 금요일(13:00~17:00), 월, 토, 일 휴관



1. 조성과정

아파트 하면 통상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경기도 수지의 동문굿모닝힐에 가면 졸졸졸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를 만날 수 있다. 대개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형식적으로 공간만 갖춘 것과는 달리 굿모닝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표적인 아파트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직후 도서관준비위원회 발족

굿모닝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조성되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된 직후인 2008년 1월 도서관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도서관 건립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3월 도서관 인테리어를 시작했으며 5월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2008년 7월 3천여 권의 책을 구비하여 일부 열람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개관했다. 그러나 야심찬 출발과 달리 자원봉사자의 수가 줄고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이 바뀌면서 도서관 운영은 한동안 지지부진해졌다. 단순 주민센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도서관은 200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2009년 11월, 지원금을 받아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재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관식 장면



굿모닝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공간 확보에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일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504동 1, 2호를 확장하여 여느 도서관 못지않은 규모를 갖추었다. 도서관 내부엔 책 대출·반납 데스크를 비롯하여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담소 공간, 문화 활동이 가능한 놀이 공간 등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유아서가와 아동서가, 일반서가가 칸막이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장서는 2013년 하반기 현재 일반도서 3,500권, 유아도서

1,000권, 어린이도서 8,000권, 원서 2,000권, 비도서 115권, 잡지 200권 규모로 도합 15,0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2. 운영사례

굿모닝도서관은 순수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관장을 두고 26명의 무급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다. 하루 4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모집하여 충원한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도민사서제도 매뉴얼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12년 경기도와 행복한재단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 8개 도서관에서 2명씩 16명이 지원하여 매니저포함 총 17명의 인원이 7개월 동안 각 도서관에 맞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운영매뉴얼에는 장서구입과 대출방법, 회원관리, 자원봉사자 활동내용,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봉사자가 바뀌어도 매뉴얼을 통해 도서관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관장의 임기는 1년이다. 관장 밑에 총무와 교육, 홍보, 동아리, 장서개발, 자료관리 등의 세부 담당을 두고 있다. 총무는 회계와 재무 일체를 관리하며 교육담당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도서관 이용자교육, 홍보 담당은 정기행사(어린이날, 용도협축제, 여름방학 밤새기, 개관기념일, 크리스마스행사)와 기타 비정기 행사 관리, 동아리담당은 각종 인문학강좌와 독서동아리 운영을 책임진다. 장서개발 담당자는 도서선정과 도서등록, 기증 및 폐기, 연체자 관리, 도서수선 등을 책임지며 자료담당은 서류지원과 홈페이지관리를 맡는다. 자금 집행 등 중요 사안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며 운영위는 상임운영위원과 전체 운영위원을 각기 두고 입주자 대표회의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상임위원회는

운영회의 장면



도서관장, 총무, 요일장을 역임한다. 전체 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 및 입주자 대표회의장,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포함한다.

꼼꼼한 장서관리와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장서는 요일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파손된 책이나 기타 손질이 필요한 장서는 요일별 담당자가 수합하여 처리한다. 연간 도서구입비는 지원사업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2013년 경우 지원예산 690만 원 중 520만 원을 도서구입에 집행하였다. 이외에도 매월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간 구입에 쓰고 있다. 도서구입은 장서개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구입 목록을 작성한다. 장서개발위원회에서는 주제별로 인원을 두어 장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주변 학교의 추천 목록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목록을 참고하며 희망도서 또한 꼼꼼히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월례회에서 검토 후에 승인하면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구매한다. 굿모닝도서관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70여 명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전체 1,334세대 중 975세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도서관문화교실과 정기·비정기 특강으로 구분된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독서동아리’와 ‘빛그림자’, ‘영화상영’ 등이 있다. 독서동아리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그달 선정된 책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성인들 대상이며 ‘빛그림자’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선생님이 창작동화와 전래동화 한권씩을 선정,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구연동화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유아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근교 유치원에서도 도서관 견학 시 ‘빛그림자’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는 ‘영화상영’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독서지도시특강’과 ‘방학특강’, 다양한 성인강좌가 비정기적으로

성인 독서동아리 2012년 지정도서

- 1월 미학 오딧세이(진중권)
- 2월 이탈리아 기행(요한 볼프강 폰 괴테)
- 3월 뇌를 훔친 소설가(석영중)
- 4월 내 이름은 빨강(오르한 파묵)
- 5월 장미의 이름(움베르토 에코)
- 6월 백설공주는 왜 지꾸 문을 열어 줄까?(박현희)
- 7월 비프스튜 자살 클럽(루이스 페르난두 베르시무)
- 8월 그림, 문학에 취하다(고연희)
- 9월 두 남자의 집짓기, 땅콩집(이현욱)
- 10월 달리기를 말할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무라카미 하루키)
- 11월 덩버라, 빈곤(유아사 마코토)
- 12월 체링크로스 84번지(헬렌 한프)



열리며 어른과 아이를 위한 ‘독서동아리’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개관 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이 바뀌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한동안 도서관운영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입주자들과 도서관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다시 도서관운영이 활성화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서관운영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케이스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상근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꾸리는 도서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수급이 맞지 않을 경우 곧바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꾸준한 인력관리와 지역민들의 희생정신이 있기에 도서관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1. 빗그림자 공연

2.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3. 재정마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만큼 운영비 역시 동문굿모닝힐 입대위에서 매월 1일 최소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별도의 후원금은 받지 않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 운영 예산안을 올리면 입대위 동의하에 매월 운영비를 지급받는 형태다. 지출내역을 매월 말 입대위에 보고된다. 2012년 기준, 월 50만 원씩 연간 총 6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 돈은 도서구입 및 용도협회비, 월례회의비 및 기타 도서관 필요물품 대여비 등으로 쓰인다. 이외에도 특별 어린이날 행사, 도서관 밤새기, 크리스마스행사 등의 특별 행사 때 행사비를 지

원받기도 한다. 자체 지원금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외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민간이전보조금 700만 원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행복한재단, 문학나눔 등의 단체에서 책을 기증 받았다.

4. 기타

굿모닝 발자취

- 2007년 12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성
- 2008년 1월 입대위에서 도서관 준비 위원회 결성
- 2008년 3월 도서관 인테리어 작업시작
- 2008년 5월 23일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도서관 지킴이 공고
- 2008년 6월 11일 도서관 처음으로 책 구입
- 2008년 7월 23일 도서열람시작 (3,000권)
- 2008년 10월 13일 도서관 개관식 및 제1회 책사랑 한마당 축제
- 2009년 3월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도서관으로 추천
- 2009년 4월 문체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도서관으로 선정
- 2009년 10월 지원 사업비로 인테리어 공사
- 2009년 11월 9일 도서관 재개관
- 2011년 5월 용도협 축제 ‘어울림 더울림’ 참가
- 2011년 11월 민간이전 보조금 500만 원 지원
- 2012년 4월 작은도서관 A등급 평가 - 민간이전 보조금 700만 원 지원
- 2012년 5월 어린이날 마을 축제
- 2012년 7월 밤새기 행사
- 2012년 12월 크리스마스 행사, 총회
- 2013년 4월 작은도서관 A등급 평가 - 민간이전 보조금 690만 원 지원
- 2013년 5월 용도협 주체 마을축제 참가, 어린이날 행사
- 2013년 7월 밤새기 행사
- 013년 12월 크리스마스 행사, 총회



봄삭도서관

봄삭도서관은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이 비어 있던 관리동 건물 2층을 도서관으로 꾸미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직원을 두고 자원 봉사자들이 뒤를 받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위치·규모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프링아파트 관리동 2층
031-948-8668
면적: 79.2㎡
장서 수: 12,335권
<http://cafe.daum.net/palmspring>

운영현황

개관: 2003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아파트)
운영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인원: 팀장, 상근사서, 봉사자 13명
회원 수: 2,524명
일평균이용인원: 23명
운영시간
월 ~ 금: 오전11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



1. 조성과정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봄삭도서관엔 오늘도 봄날 새싹처럼 무럭무럭 아이들이 커간다. 개관 10년이 지난 현재도 하루 20, 30명이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7천여 명에 달한다.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칫 삭막하기 쉬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초기 시설비용 3천만 원으로 관리동 개조

봄삭도서관 역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들어섰다.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단일 3천여 세대에 인구가 만 명에 이르렀지만 주변에 문화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보다 못한 부녀회에서 도서관을 세워보자고 힘을 모았다. 부녀회 임원과 자원봉사자 20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도서관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초빙하여 서가 정



도서관 내부 모습

리 및 도서 분류 방법, 책꽂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배웠다. 장소 문제는 비어 있던 아파트 관리동 2층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해결되었다. 장소를 결정할 때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넓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공간과 그보다 조금 작지만 별이 잘 드는 2층 가운데 어디에 도서관을 만들지 고민했던 것이다. 결국 조금 좁더라도 별 잘 드는 2층으로 장소를 정했다.

부녀회가 십시일반 나선 결과 초기 시설비용으로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고 2,450만 원을 도서 구입에 쓰고 나머지 돈으로 책장을 장만하고 최소한의 설비를 마쳤다. 파주시의 물심양면 지원도 도서관 건립에 큰 힘이 돼 주었다. 장서는 십진분류를 토대로 하되 봄씩도서관만의 특징인 책꽂이 번호를 부여하여 유치부 어린이라 하더라도 직접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도서 배열에 있어서도 하단 책꽂이에는 어린이용 도서, 상단에는 청소년과 성인 도서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개관과 동시에 유급상근직원을 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보조하며 일을 시작했다. 개관초기부터 유급직원을 두는 결정에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도서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직원이 꼭 필요하다는 부녀회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2. 운영사례

도서관은 운영위원회 밑에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위원을 겸임한다. 상근자에게는 월 6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팀장을 포함하여 13명이 매주 돌아가며 봉사 중이다. 다른 도서관은 관장이라고 부르지만 봄씩도서관은 팀장이라고 부른다. 봉사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도서관 이용자는 유아와 초등생이 주를 이루고 이따금 한글을 막 배우신 할머니께서 그림책을 대출하거나 일흔이 넘는 할아버님께서 드르시기도 한다. 모든 책은 비닐커버로 포장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문화프로그램으로는 ‘북스타트’, ‘퀼트교실’, ‘코튼돌’, ‘심리미술’ 등이 있다. ‘북스타트’는 태어나면서부터 3세 정도까지의 유아와 엄마가 편안히 모여서 신체놀이, 동화구연 등을



1. 어린이날 행사중 연극공연 장면

2. 여름특강 - 부채만들기

하고,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과 함께 수다를 떨기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퀼트교실’은 학생들이 등교해서 한가로운 오전을 이용하여 엄마들이 취미로 작품 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코튼돌’은 각양각색의 인형을 만드는 활동으로 ‘퀼트교실’과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다.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심리미술’은 전문가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그림치료, 가족관계, 성격검사, 진로적성등 진단해 주며 지역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파주시 지원금으로 ‘이어테라피(귀건강요법)’, ‘네일아트’, ‘독서지도’, ‘토탈공예(냅킨, 한지, 비즈, 풍선)’, ‘쿠키만들기’, ‘POP’ 등 지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어린이날 행사, 개관기념일 행사, 여름방학 학생특강, 겨울방학 학생특강, 동아리활동, 상시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작은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벼룩시장 행사

3. 재정마련

운영비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지자체로부터 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도 있다. 1년에 한번 씩 파주시의 도서관 운영위원과 공무원, 시의원등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평가단들이 서류심사, 실제방문심사를 통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 봄씩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 프로그램지원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2012년 기준 인건비로 720만 원이 지급되었고 도서구입비 360만 원을 집행했다. 기타 운영비는 240만 원이 들었다. 집행 내역은 월별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된다.

4. 기타

최근 아파트 바로 앞에 시설 좋은 공립작은도서관이 개관되어 봄씩도서관 운영에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도서관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넘친다. 안방처럼 방안에 편안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와 정기적인 도서 구입을 통해 꾸준히 양질의 책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현재 봄씩도서관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서관 확장을 고민 중에 있다.

봄씩 발자취

- 2003년 11월 20일 개관
- 2007년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참가
- 2012년 파주시 도서관 지원사업 매년 우수선정



팔판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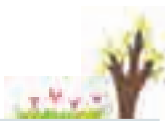
팔판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련한 '겨울방학 재미교실'을 통해 여러 사람의 꿈이 더해져 탄생한 작은도서관이다. 관장과 사서 및 운영위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운영상의 문제를 의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아파트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살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문턱 없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치 · 규모

경남 김해시 관동동 448-1 팔판마을
부영e그린3차 관리동 지하1층
055-312-9822
면적: 도서관 126㎡ 문화강좌실 180㎡
장서수: 6700권
<http://cafe.daum.net/vkfvks>

운영현황

개관: 2009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아파트)
운영주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인원: 유급직 및 자원봉사자
회원수: 694명
(김해통합도서관 162,933명)
일평균이용인원: 40명
운영시간
월 ~ 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1. 조성과정

팔판작은도서관은 '사람은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은 사람을 만든다'는 글귀처럼 사람이 모여드는 따뜻한 도서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다. 팔판이라는 이름은 김해시 관동동 일대의 옛 지명이 팔판마을이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팔판이라는 뜻 속에는 여덟 명의 판사가 나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겨울방학 재미교실'이 모태가 되다

팔판작은도서관이 위치한 김해시 관동동 일대는 부산, 창원 등과 인접한 신도시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원래는 김해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지역이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다. 팔판작은도서관 주변엔 1,304세대에 약 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이들 중에서 약 60% 정도가 유아나 초·중·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의 거주비율이 높다. 이곳에 도서관 조성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 건 2009년 초였다.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교환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나갔다.

2008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학생들과 부모가 참여하는 겨울방학 재미교실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김해시에 도서관 지원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

1. 개관기념 행사
2. 문화강좌실 개소식 축하공연



았다. 도서관 장소는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창고로 방치된 공간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면서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생긴 인근의 도서관을 견학한 뒤 건설사에 요청하여 도서 1,000권과 열람석을 지원받으면서 최소한의 여건도 갖춰졌다. 주민들은 작은도서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2009년도에 ‘책읽는도시 김해’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게 큰 힘이 되었다. 여기에 아파트 재활용수입금 1,000만 원과 7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아파트위탁업체에서 기부 받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충당했다.

학교도서관에서 7년간 봉사한 경험이 있는 현 배주임 관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운영을 시작했다. 도서관 이용자는 팔판마을 부영e그린 3차, 8차, 9차 아파트주민과 신안초등학교학생, 인근 신안마을주민이며, 영유아와 부모,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그들의 부모가 주이용자다. 초등학교학생과 중·고등학교생들도 자주 도서관을 찾는다. 2013년 8월에는 김해 지역시의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 옆 비어 있던 공간에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동아리실을 갖춘 180㎡ 규모의 팔판문화강좌실을 개관,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던 다양한 문화강좌를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마음껏 접하게 되었다.

2. 운영사례

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서위원, 편집위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재능나눔봉사자,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나누고 맡고 있다. 관장과 사서, 감사 등이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운영상의 문제를 의결한다. 자원봉사자와 엄마들로 구성된 수서위원들은 좋은 책을 찾아 구입할 책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은 소식지를 책임지며 책읽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화요일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서관 정리정돈, 행사지원 등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대출 권수가 상향조정되며 봉사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큰책만들기-책봉이



5월 가정의 달 행사 장면

엄마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다

도서관 운영의 중심에는 자원봉사자 엄마들의 모임인 ‘행복한 울타리’가 있다. 매주 화요일 책 읽어주기를 비롯해 한 달에 한 번 독후활동을 한다. ‘행복한 울타리’는 2011년 아이들의 책읽기와 독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20~30명의 어린이로 작은도서관이 꽉 찬다. ‘행복한 울타리’는 프로그램 개설 이후 『북타러간 총각』, 『야광귀신』, 『양초귀신』, 『유관순』 등의 책을 읽어주고 북주머니와 방패연, 한지 등(燈), 태극기퍼즐 만들기를 하는 등 서른 번 가까운 활동을 펼

쳤다. 구성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도서관에 모여 책을 선정하고 더 재미있는 진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외에도 공동육아 모임인 ‘하얀도화지’, ‘책꿈’, 큰책만들기 봉사 모임인 ‘책봉이’ 등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화요일 책읽어주기’와, 월 1회 활동으로 ‘토요독후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영화감상’ 등이 있다. 매주 진행되는 자체 프로그램 외에도 아파트 주민이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 행사, ‘한여름 밤의 시낭송대회’ 등이 해마다 열린다. 2013년 시낭송 행사의 경우 ‘자연을 담자, 자연을 그리자’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시와 그림을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하여 시낭송하는 자리를 성황리에 마련했다. 겨울방학 때는 ‘도서관과 떠나는 문화탐방’, ‘도서관이랑 친구되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2월에는 그 동안 도서관을 후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의 밤을 연다. 이외에도 도서관과 함께하는 재능나눔교실로 ‘수학교실’, ‘과학실험교실’, ‘유아미술교실’이 열린다.

팔판작은도서관의 문화행사로는 ‘도서관과 떠나는 문화탐방’, ‘도서관이랑 친구되기’, ‘예비학부모 교실’, ‘작가와의 만남’ 등을 들 수 있다. ‘도서관과 떠나는 문화탐방’은 매년 한 차례씩 아이와 부모가 떠는 겨울 여행으로 문화유적지와 생태환경 보전지역 등을 탐방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도서관이랑 친구되기’ 행사는 도서관 주변의 어린이들이 모여 도서관에서 추억도 쌓고 친구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김해시 지원 문화사업으로 ‘어린이 인문학교실’, ‘오감체험 중국여행’, ‘도서관에서 즐기는 미

술관'과 행복한도서관재단 지원 '토요도서관문화학교'를 열었다. 2013년 4분기 문화강좌프로그램으로는 '자신만만스피치', '캘리그래피', '요가', '종이랑 클레이랑', '표현미술', 'POP', '역사여행', '동화구연', '피비우스 발명교실' 등이 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들의 가장 큰 장점은 김해시통합도서관의 42개 도서관과 상호대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책두레(타관대출서비스)를 통해 인근의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의 책을 신청만 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통합도서관시스템 덕택이다. 김해시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필요한 책이 있을 경우 멀리 가지 않고도 타 도서관의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스템이다.

3. 재정마련

김해시에는 '책읽는도시 김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매년 사서인건비를 포함하여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김해시의 지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지원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후원금도 받는다. 도서관이 용지들도 매달 자발적으로 1,000원에서 20,000원까지 후원한다. 도서관 벽면에 기부천사나무를 제작해서 기부자들의 이름을 붙여준 뒤부터 기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고정적인 월 후원자는 40여 명 수준이며, 기부천사지는 대출권수 상향조정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익사업으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도서관옆 벽화공원에서 이용자와 벼룩시장을 열며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먹을거리장터를 열어 수익을 얻는다.

기부천사나무



수익금 전액은 도서관구입비로 사용된다.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또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4. 기타

팔판작은도서관 발자취

- 2008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겨울방학 재미교실 운영
- 2009년 3월 작은도서관 준비위원회 구성
- 2009년 3월 책읽는도시 김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대상 선정
- 2009년 7월 팔판작은도서관 개관
- 2010년 7월 개관1주년 기념행사
- 2010년 10월 팔판작은도서관 벽화그리기
- 2011년 7월 개관2주년 기념행사
- 2011년 7월 KBS TV 소개 (김해통합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례)
- 2011년 12월 문화강좌실 개관
- 2012년 7월 개관 3주년 기념행사
- 2013년 1월 김해뉴스 보도 (김해시 작은도서관 탐방)
- 2013년 2월 국제신문 보도 (공동체의 재발견)
- 2013년 2월 기장군 시관계자 방문
- 2013년 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관계자 방문
- 2013년 7월 개관 4주년 기념행사
- 2013년 9월 문화강좌실 리모델링 개소식
- 2013년 10월 김해뉴스보도
- 2013년 11월 사천시 작은도서관 관계자 방문



작은도서관에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성장한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사서들이 시작한 작은도서관으로
2014년에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전환예정



맨발동무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진화한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서관 학 전공학생들과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작은도서관으로 전국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도서관이다. 수차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허파 노릇을 하며 공공사립도서관으로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하여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변모한 곳이다. 육아공동체를 이끌었던 몇몇 주민들이 집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 천여 권의 책으로 마을 사랑방을 만든 게 시작이었다. 현재는 일평균 150명의 이용자에 8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관장과 사무국장, 기획홍보, 이용자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등 8명의 운영위원이 세부업무를 조율하고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사서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하고 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다양한 공간구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만화방은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서관학 전공학생들과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작은도서관으로 전국에 작은도서관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도서관이다. 수차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나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허파 노릇을 하며 공공사립도서관으로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위치 · 규모

서울시 관악구 난항동 673-23호
정산빌딩 3층
02-839-1121
면적: 80.96(㎡)
장서 수: 15,000여권
www.nangoklib.org

운영현황

개관: 1989년 10월 3일
운영유형: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새숲회
운영인원: 20명
회원 수: 1,500여 명
일평균이용인원: 30명
운영시간
평일: 오전10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10시~오후4시



1. 조성과정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하늘과 가까운 동네 난곡에 5평 남짓한 작은도서관 하나가 문을 열었다. 독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하고, 도서관은 책과 사람이 만나는 살아있는 유기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도서관학 전공학생들과 사서들이 힘을 모은 결과였다. 90년대 초반, 1세대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한때 유행처럼 생겨났다가 도서관대여점들이 동네 곳곳에 들어서면서 많은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던 시절에도 난곡주민도서관은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25년의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도 주민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오고 있다.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처음부터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5평 공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난곡'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통했다. 1967년경부터 난곡은 한강변의 홍수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과 서울 청계천변 등의 도심재개발로 인해 집단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규모 무허가정착촌이 생겨났다. 2000년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난곡은 판자집과 좁고 가파른 골목, 공동화장실과

간이수도 등 전형적인 달동네의 전경을 가진 동네로 가난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듯이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을이었기에 난곡은 7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 결과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남부고등공민학교, 낙골교회와 낙골공부방, 탁아소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왔다.

1988년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의 도서관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합회가 결성되면서 당시 우





도서관 탄생의 주역들

리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생겨났다. 이런 성찰은 무언가 우리 힘으로 바꿔보자는 목소리로 의기투합되었다. 학생들의 독서실로 전락한 도서관, 케케묵은 책들로 먼지만 쌓여가는 서가, 공공재이면서도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도서관, 이런 현실에 대한 성찰로부터 책이 책답게 살아있는 도서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도서관, 주민들의 삶에 다가서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고 손을 모으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89년 10월 3일, 남부고등공민학교 교실 하나를 무상으로 빌린 뒤 ‘난곡주민독서실’이라는 작은 현판을 걸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제한사항이 있어서 ‘도서원’, ‘도서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던 시기였다.

도서관이 문을 열자 지역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독서모임을 만들면서 동참해왔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 운영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 ‘새숲회’가 결성되었다. 도서관이 1주년을 맞는 1990년 결성된 새숲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마련된 자치조직이다. 설립 초기 새숲회는 철저하게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되었다. 각 소모임의 대표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체 회원들이 매달 총회를 열어 도서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였다. 청년들이 모이면서 지역운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25년이 흐른 지금, 달동네는 아파트단지로 바뀌었고 도서관도 이사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왔다. 하지만 새숲은 여전히 주민들 곁을 지키고 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IMF 실업대란과 재개발 등 지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곡주민도서관은 간사단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1999년 난곡주민도서관이 독서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위기를 넘기다

새숲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특히 도서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공간(장소)과 관련해서는 몇 번의 고비를 넘었다. 첫 번째 고비는 1995년에 있었다. 도서관이 무상임대하고 있던 남부고등공민학교에 불이 나면서 많은 장서가 불타거나 물에 젖고 도서관 건물 일부가 화마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겪었다. 그러나 새숲회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책을 보강하고 불탄 가구를 수리하고 도서관을 조금 확장하여 재개관하여 도서관 운영을 계속했다. 당시에는 도서대여점들로 인해 도서관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서 다시 도서관을 문을 열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컸다.

내 집처럼 편안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2000년에는 남부고등공민학교가 옮겨가면서 도서관 역시 거리로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위기는 곧 기회였는데 난곡주민도서관은 남부고등공민학교에서의 10년 세월을 접고 새롭게 만들어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난곡사랑방’으로 전격 이전하게 된다. 난곡사랑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도서의 비중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성인들의 참여는 축소되었다. 그러다보니 도

서관이 난곡사랑방의 보조적인 기능에 머물게 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6년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다. 난곡사랑방이 내부 사정으로 난곡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난곡주민도서관은 '난곡사랑방'과 함께 이전하지 않고 난향동에 남아 독립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한다. 가진 재산이라곤 400여만 원의 현금과 수천 권의 책이 전부였지만 운영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새숲회원들을 중심으로 출자 형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고 월세 또한 십시일반 후원받아 25평 규모의 현재 공간으로 이전하였다. 생긴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 위하여 이름도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으로 바꾸었다.

2013년 1월 또 한 차례 큰 위기가 찾아왔다.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던 기업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원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다. 안 그래도 매년 적자에 시달리던 도서관으로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위기 앞에서 새숲회원들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도서관을 도와달라는 전단지들을 만들고 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도움을 요청했다. 매월 1구좌당 3,000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200구좌 확보운동을 벌인 결과 이번에도 폐관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난곡주민도서관이 지난 25년 동안 몇 번이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새숲회의 끈끈한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20대 초반의 열혈 청년이었던 이들이 지금은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숲회원들의 마음에는 처음 도서관 문을 열었던 그때의 열정과 관심이 살아있다. 그 힘이 오늘도 도서관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사립공공도서관으로의 새로운 꿈을 품다

현재 난곡주민도서관은 25평 규모의 작은 공간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현재 공간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장서와 이용자들이 증가한 덕에 2010년이 되자 도서관은 이미 책과 사람들로 거의 포화상태가 되었다. 책을 더는 꽂을 공간이 없어 서가 여기저기 쌓아두었고 독서모임이나 강좌가 있는 날이면 이용자들이 알아서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책모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할수록 그나마 아이들이 책 읽을 공간을 잃어버렸다. 이용자가 늘면서 상대

적으로 작아진 도서관 공간이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새숲의 지난 시간은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보다는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결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사립공공도서관으로의 변신이었다. 2011년부터, 도서관 인근에 사용되지 않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건물로 도서관을 확장 이전하고자 지역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2013년 초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구청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면서 결국 새숲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2014년 확장이전을 앞두고 현재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새숲이 25년 만에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 운영사례

난곡주민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15,000여 권에 달하는 장서다. 애초에 난곡주민도서관은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출발하여 어린이,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간 경우라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 장서가 많다.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도서관답게 장서는 KDC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 처음도서관에 오는 사람들도 원리

만 알면 자료를 찾기가 용이하다. 저자기호는 장일세식 동양서저자기호를

1. 20주년 기념행사 장면
2. 책을 정리중인 청소년 봉사자들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와 그림책, 성인도서와 청소년도서가 반반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현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장과 실무자도 운영위원으로 겸하고 있다. 실무자를 제외한 운영위원 모두가 도서관 초창기 멤버로 새숲회원이며 이 중 2명은 초창기 청소년모임을 함께 한 회원들이다. 운영위원회는 주로 도서관 활동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다만 운영위원들이 실무적으로 결합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은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이나 자원활동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한다. 대출 반납업무나 도서 정리 등을 담당하는 자원활동가는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새숲에서는 독후 활동 및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빛그림극장’을 격주로 진행한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이나 문학기행과 같은 프로그램은 각각 매년 1회 정도 진행한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는 여름과 겨울에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생태교실’과 ‘종이공예교실’을 연다. 도서관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또 다른 사업 중 하나는 성인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아이의 마음을 읽는 책읽기 강좌’, ‘옛이

야기 스토리텔링 강좌’에 이어 2012년에는 ‘사회과학 강독회’, 2013년에는 ‘인문학 강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 구성된 독서모임이 2년 반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모임을 기반으로 그림책모임과 인문학모임 등의 모임이 연달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단체 ‘난곡예술창작소 달달한동네’와 공간 제휴를 맺고 기타동아리 모임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기타동아리모임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강좌에 대한 인기가 높다. 2013년에는 관악주민연대와 연계하여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새숲절전소 운동을 함께 펼치고 있기도 하다. 절전소 운동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1년에 한번 지역의 단체들이 모두 모여 지역주민문화축제로 ‘난곡주민어울마당’을 개최하는데 2013년에는 난향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가졌다.

3. 재정마련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2007년 현재 공간으로 이사를 오면서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운영비의 비중이 높지 않았고 인건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독립공간을 가지게 되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독립공간 마련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다. 그러던 차에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의 친구도서관이 되면서 2008년부터 사서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포함하여 한달에 180만 원의 지원받고 있다. 새숲회원들의 회비를 포함한 정기후원금은 25%정도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들 중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3년 1월 기업의 임대료 후원이 중단되면서 이용회원들에게 200구좌 확보운동을 진행하였고 80%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사립공공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앞둔 지금 새숲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새숲의 1년 수입과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결산 내역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이월금	8,794,154	임대료	7,920,000
정기후원금	11,419,740	수도광열비	1,501,760
비정기후원금	2,213,892	사무비	1,685,195
느티나무도서관재단	21,600,000	인건비	26,627,120
기업후원	7,200,000	도서구입비	9,084,490
국고보조금	2,000,000	사업비	1,793,220
합 계	53,227,786	합 계	48,611,785
		차년 이월	4,616,001
총 계	53,227,786	총 계	53,227,786

4. 기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의 꿈과 비전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편안한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주민 스스로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지향합니다.
-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숲 발자취

- 1989년 3월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1989년 10월 3일 '난곡주민도서관'으로 개관
- 1989년 12월 소식지 창간호 발행
- 1990년 11월 새숲회 결성
- 1994년 10월 난곡주민도서관 5년사 발간
- 1995년 5월 화재로 건물 일부 및 도서 훼손
- 1995년 6월 복구공사 후 재개관
- 1998년 12월 실직가정 아동을 위한 사랑의 학교 사업
- 1999년 2월 실업극복한가족운동 지원사업 참여
- 1999년 9월 독서문화상 대통령상 수상
- 2000년 4월 난곡사랑방으로 도서관 이전
- 2001년 3월 실직 청년을 위한 웹디자인교육 주관
- 2007년 2월 현재 위치로 이전,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으로 명칭 개정
- 2009년 10월 20주년 기념행사
- 2010년 2월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 2011년 4월 '우리아이 마음을 읽는 책읽기 강좌'
- 2012년 3월 '사회과학강독회' 사업 추진
- 2013년 1월 새숲 확장이전을 위한 특별사업 추진
- 2013년 10월 '사단법인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설립 추진

초창기 멤버로 도서관을 지켜본 이명애 관장

도서관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

처음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 10월 도서관이 1주년을 맞이하던 때다.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사회생활을 의미 있게 해보고자 고민하던 차에 난곡주민도서관을 알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무작정 도서관을 찾아갔다. 10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난곡버스 종점에 내려

올 때 눈앞에 펼쳐졌던 거대한 달동네 풍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도서관의 모습도 기대하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얇은 합판을 얹은 건물은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이 위태웠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하나 둘씩 이곳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청년들,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엿보았던 것이다. 처음 보는데도 마치 몇 년을 안 것처럼 따스

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금방 마음이 따스해졌다. 그 후 집에서 2

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하루가 멀다하고 등락거리며 새소원이 되고, 94년에

는 도서관을 이끄는 관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 현재도 가끔 무엇이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여기 도서관에 묶어두었는지 생뉘하곤 한다. 아마도 ‘

관객의 힘’ 이 아닐까. 처음 도서관으로 들어서서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던 사

람들, 도서관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는 그들, 그들

이 있기에 새소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운영상의 조언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도서관의 대표로 있었지만 도서관 활동과 운영에 대해 아직도 많

이 안다고 할 수 없다. 아직은 배우는 입장이다. 굳이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도서관이 무엇인

가’에 대한 고민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최근 도서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

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새 우리사회에서 도서관이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하는 점이다. 한편

돌랑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서관이 너무 도구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장식품처럼 전락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때가 있다. 지금 작은도서관운동은 하나의 기로에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함

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어려움과 해결과제는?

다들 그렇겠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
은 단순히 운영비 문제일 수도 있고,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도서관은 공간이 없는 생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새소원의 경우에는 공간의 문제가 활동을 제약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생뉘해서 오랫동안 확장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오다 결국 올해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런데 공간을 확장 이전
한다고 생뉘하니 또 운영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못자고 있다. 어떻게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것인지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빈곤의 작은도서관들을 공립화한다거나 또는 작은도
서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단선적인 해결책으로는 작은도서관의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고 생
각한다. 삶의 질문과 연동되어서 고민과 성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목표가 있다면?

저항한 목표보다는 지금껏 그래왔듯 꾸준히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도서관이 되고 싶다. 누구나 도서관
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서가를 오가다가 맘에 드는 책이나 물건을 아무렇게나 앉아서 읽어도 무라하는 사

람 없고, 때로는 구석에 앉아 소곤소곤 수다를 떨기도 하고, 어디선가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연애
를 하기도 하는, 학원에 다니느라 피곤한 아이는 책 펴놓고 잠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도서관이면 좋겠

다. 친구들과 어울려 키득거리며 만화책을 읽고, 누군가는 열매게

호문을 벌이고, 무뎡한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한잔 미실 수도 있는 그런 도서관 말이다. 책

과 사람이 만나고, 책과 책이 만나

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세상

과 미래를 만나는 그런 도서관

이면 좋겠다.





맨발동무도서관

맨발동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하여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변모한 곳이다. 육아공동체를 이끌었던 몇몇 주민들이 집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 천여 권의 책으로 마을 사랑방을 만든 게 시작이었다. 현재는 일평균 150명의 이용자에 8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관장과 사무국장, 기획홍보, 이용자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등 8명의 운영위원이 세부업무를 조율하고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사서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하고 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다양한 공간구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만화방은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위치 · 규모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층 616-834
051-333-2263
면적: 264(m)
장서 수: 23,000
www.maenbal.org

운영현황

개관: 2005년 7월 17일
운영유형: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주체: 맨발동무도서관
운영인원: 100여 명
회원 수: 8,000
일평균이용인원: 100명
운영시간
수, 목: 오전10시-오후6시,
금: 오전10시-오후9시, 토, 일: 오전 10시-오후5시



1. 조성과정

부산시 북구 화명2동에 위치한 맨발동무도서관은 그 이름부터가 편안한 곳이다. 누구든 맨발로 슬리퍼 끌고 조금만 걸어가면 책과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평상처럼 꾸며진 독서대에 앉아 책을 읽다가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눈다. 큰 소리로 책을 읽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해 아이를 키워내고 아이가 크면 다른 아이를 위해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며 그렇게 지역민이 한데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수백 년 계속되어 온 마을 공동체의 맥을 잇다

금정산 물줄기를 둘러싸고 형성된 부산시 북구 화명2동 대천마을은 부산에서도 아주 특별한 동네로 꼽힌다. 대천천을 사이에 두고 양달마을과 음달마을로 나뉘진 이곳 한 지붕 두 마을에는 지금도 토박이 어르신들이 상당수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회를 중심으로 옛 공동체문화가 고스란히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북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환경주거공동체 '대천천네트워크', '맨발동무도서관', 지난 2008년 처음 문을 연 '대천마을학교' 등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체 문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다. 해마다 풍물을 돌리고 마을 축제를 열던 공동체의 맥이 사실상 끊어졌다.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30%에 육박했고 육아 및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을 열며 새로운 마을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자녀 교육문제를 고민하던 일부 주민들이 만든 조합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점차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민 전체를 위한 마을 공동체로 발전한 셈이다. 작은도서관도 같은 길을 걸어왔다.

작은도서관으로 출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성장

맨발동무도서관은 단순한 수다에서 출발했다. 평소 자주 모여서 어린이 책을 함께 읽으며 육아를 고민하던 주민들 여섯 명이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물음표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2005년 7월 17일 여섯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나갔다. 이웃들이 동참하면서 천여 권의 책이 모였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법, 북구보건소 후문 근처에 25평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들은 각자 십시일반 돈을 각출하여 서가를 설치하고 천여 권 책을 기반삼아 도서관 문패를 달았다.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도서관이 생기자 입소문을 타고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을 위한 마땅한 시설이 없던 차여서 지역민들에게는 어린이 도서관 개관은 단비 같은 사건이었다. 도서관 설립 이전부터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을 통해 자원활동 경험을 쌓았던 운영진들은 개관 초기부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엄마와 아이들의 발길을 도서관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2005년 11월 부산시 북구청에 도서관을 사립문고로 등록했으며 경향신문과 책사회 주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장서도 보강하고 부족했던 시설도 확충할 수 있었다. 2006년 1월 도서전산화 완료하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자원활동가 대상 대출을 시범운영하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및 반납업무를 시작했다. 2006년 11월 한겨레와 삼성, 책사회가 진행하는 ‘희망의 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도 도서관 확장에 큰 힘이 돼 주었다.

2010년 도서관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다. 공간을 넓혀 현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층(264㎡)에 새롭게 등지를 틀게 된 것이다. 도서관이 이사하던 날 운영진은 지역민이 참가하는 도서관이사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마을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 가족끼리 참여

1. 새 도서관으로 이사하던 날

2. 장서 점검 중인 자원활동가들

하여 보파리에 책을 싸고 수레에 책을 실어 마을길을 따라 ‘보파리 이사’를 했다. 이사 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도서관 이사도 마을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마을주민 모두에게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 셈이다. 도서관의 성격도 작은도서관에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격상되었고 장서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어린이 위주에서 청소년과 일반이 모두 이용 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2. 운영사례

동네 귀퉁이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한 맨발동무도서관은 이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하루 평균 100여 명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회원 수는 8천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운영비며 품도 많이 드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도 자발적인 참여다. 주민들은 도서관의 적극적인 이용자이자 도서관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자원활동가이며 나눔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도서관의 후원자이다.

맨발동무의 사람

관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8명의 운영위원들이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연 1회 연수, 월 2회 운영위원회, 연 5회 이상의 직무연수, 연 10회 이상의 공부 모임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영과 관계된 전반적인 결의 사항, 수입 지출 내역 등은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약 2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대출 반납, 책 정리, 회원가입 등 도서관 기본 업무를 담당한다. 도서관의 든든한 친구들인 자원활동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월 1회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월 3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도 많다.

맨발동무도서관은 그 어느 작은도서관보다도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2012년 기준,

자료, 회원가입, 대출 변화 추이

	2012년	2011년	비고
자료등록	3,434개	4,789개	총장서: 23,780권
회원가입	1,207명	1,800명	총회원: 7,261명
대출자수	13,181명	16,330명	일평균: 45명
대출권수	43,398명	54,540개	일평균: 150개

1,207명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고 총 43,398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하루 평균 150개 (DVD자료 포함), 월 평균 3,618 건의 자료가 대출되었다. 가장 많이 대출된 영역으로는 문학이 63.2%로 가장 높았고 특히 그림책이 가장 많이 대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예술영역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들의 문학책도 4,547회나 대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끌고루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VD자료는 3,995회 대출되었고 만화의 대출도 2,997회나 된다. 하루 평균 대출자 숫자는 45명 내외다. 대출회원 못지않게 도서관에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잠깐 또는 오랫동안 머물다 가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사람이 만나 어울리고 소통하는 곳이 되었다.

공간 구성과 장서

맨발동무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보다도 약 80평(264m)에 이르는 여유로운 공간에 있다. 50여 평에 이르는 열람실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자와 책상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평상은 다양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는 장소이기도 하고 문화공연의 무대이기도 하며 가족끼리 친구끼리 어울려 편안하게 책을 보는 멋진 열람실이기도 하다. 서가사이에 마련된 나무집은 나만의 아늑한 공간이며 남쪽 테이블은 바깥풍경과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열람실 한편에는 개방형으로 설계된 만화



사람들로 북적이는 만화방 코너



방과 어린이방(재미난다방)이 있다. 휴게실(모심방)과 문화공연과 모임을 위한 방(이야기방), 사무실(살림방)까지 짜임새 있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천여 권으로 시작한 장서는 현재 2만 3천여 권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책과 어른책 수서모임이 있어 달마다 모여 자료를 선정하고 매달 150여권의 새책을 구입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책의 경우 어린이전문서점이나 영광도서에서 직접 현장수서를 진행한다. 양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장서의 한계를 넘어 꼼꼼한 수서로 내용적으로 충실한 장서를 구성하고자 하나 아직 문건화된 수서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맨발동무도서관의 서가는 늘 이용자들이 꿈틀거린다. 이용자들의 동선이나 독서경향 등을 분석하여 서가의 책들이 이용자의 손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늘 변화를 도모한다. 상시적인 새책 전시나 작은전시회를 통해 책을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 도서관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맨발동무의 최고 인기 코너는 만화방이다. 만화방은 지역의 성인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맨발동무도서관에는 2,600여권의 만화책이 있으며 전체 장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만화는 그 자체가 책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가졌으며 많은 이용자들에게 재미와 휴식, 그리고 문학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맨발동무에는 학습만화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 목적을 지닌 수단으로서의 만화가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만화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늘 지켜가고자 애쓰는 운영진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책과 만나는 다양한 일상 활동

이용자가 많은 만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맨발동무도서관 이야기 방에선 매일 오후 4시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날마다 4시 책 읽어주기’ 시간에는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한다. 매월 2, 4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찰방찰방’은 노래부르기, 옛 이야기 함께 듣기, 빗그림으로 만나는 그림책 읽기 등의 놀이가 펼쳐지는 시간이다.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는 ‘찰방찰방 예술단’은 한 달에 두 번 책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찰방찰방, 빗그림 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커다란 책 만들기’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시도로 커다란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책은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과 찾아가는 책문화활동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른들을 위한 빗그림 보기 ‘달빛극장’은 매월 금요일에 열린다. 매월 2, 4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이야기방에서 ‘맨발극장’이 진행된다. ‘맨발극장’에서는 맨발동무 영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영화보기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활동영역에서 자원활동가들은 새롭게 나를 찾아가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정기 행사들이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일 년에 두 차례,

1. 라면극장 풍경

2. 어린이 찰방찰방 준비모임



도서관 주차장에서 라면을 나눠먹으며 영화를 보는 ‘라면극장’은 매회 2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여기에 틈틈이 주제가 있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며 18개의 어른동아리와 어린이 동아리가 참여하여 책과 이야기로 펼쳐지는 ‘밀줄 낭독회’도 책과 관련된 행사다. 1년에 한번 주제가 있는 북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며 가족,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기행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생가를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는 가족문학기행,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등의 책 관련 책을 읽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탐방했던 어린이 문학기행을 비롯해 2013년에는 ‘5·18’을 주제로 광주로 문학기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연 2회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여 하룻밤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도서관에서의 하룻밤’에는 매년 100명 이상의 마을 아이들, 어른들이 참여한다. 함께 하고 싶은 작가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칠강연’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이중 독서 동아리는 2008년 만들어진 ‘책꼬시랭이’와 더불어 ‘그림미’, ‘책꼬시랭이’, ‘책마녀’, ‘책살림’, ‘나우리’, ‘굴방수다’ 등 총 일곱 개나 된다. 직접 글을 써보는 모임으로는 ‘이 좋은 공부모임’이 있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 모임’에 들면 된다. ‘책 읽는 영화 모임’에선 영화와 책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동아리로는 ‘새싹’과 ‘그책 좋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선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40대 전후의 여자들이 참여하는 ‘그림책 수다꽃’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상 들여다보기’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진과 인문학을 매개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마을 사진 아카이브를 진행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평상너머’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일종의 마을 강좌로 다양한 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3. 재정마련

맨발동무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립공공도서관이다. 보이지 않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 일체의 회원가입비나 이용료,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있다. 도서관 운영자금은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과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매달 300여 명

의 개인 후원자나 부산지역의 향토기업과 단체 등에서 천원에서 30만 원까지 CMS나 계좌 이체를 통해 정기후원을 해주거나 비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준다. 2013년 8월 기준 5,000원 이하 정기 후원자는 약 100여 명,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자, 혹은 후원기관은 약 200여 명에 이른다. 2012년 기준, 한 해 동안 약 327명의 개인후원자가 도서관을 후원했고 이중 정기 후원자는 276명이었다. 한 달에 약 276만 원 가량이며 개인후원금의 총계는 3천 3백만 원 가량이었다. 2011년에 비해 월 기준 20만 원 가량 늘어났다. 매달 10만 원 이상을 후원하는 큰걸음 후원금으로는 총 1천 5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

2012년 회계결산 내역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9,319,637	사업비	2,360,110
후원금		- 서가 및 설비	20,010,500
- 한걸음 후원금	33,175,000	- 장서구입비	22,913,820
- 큰걸음 후원금	15,380,000	- 커뮤니티 뉴딜	692,000
- 비정기 후원금	5,001,590	- 남항시장 특성화사업	35,442,060
		- 프로그램비	1,920,000
		- 소식지	
지원사업			
- 느티나무도서관재단	12,600,000		
- 부산시	30,000,000	관리운영비	56,870,96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000,000	- 인건비	6,000,000
- 커뮤니티 뉴딜	22,000,000	- 지급임차료	6,227,177
- 남항시장 특성화사업	9,500,000	- 수도광열비	1,339,170
- 아름다운 재단	5,000,000	- 통신비	475,000
- 강연료 및 원고료	10,516,970	- 복리후생비	3,397,856
- 기타 접수입	3,836,482	- 여비교통비	7,472,579
- 미래포럼 집행잔액 반납	-2,069,138	- 제 운영비	
수입합계	178,260,541	지출합계	165,121,222



후원자들의 벽

외부 지원금도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8년부터 인터파크 도서관 느티나무 도서관 재단을 통해 친구도서관 후원금으로 사서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 어느 지원사업도 사서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던 시절에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의 지원은 단순지원을 넘어 그 의미가 컸다. 2009년에 미래포럼 만분클럽의 ‘돌봄공동체구축 관련 시범사업-어린이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때의 지원은 도서관 이전과 사립공공도서관으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 부산시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매년 3천만 원을 보조받아 도서관구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대부분의 지원이 도서관구입비나 프로그램 지원비에 치중돼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맨발동무도서관 계단참에는 ‘맨발동무도서관 친구들의 벽’이 꾸며져 있다. 도서관에 기부금을 내거나 도서관에서 자원활동하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나무에 예쁜 그림과 함께 새겨 붙여 놓은 공간이다. 도서관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준비했는데 그 마음이 전해져 모두가 사랑하는 벽이 되었다. 도서관을 오가며 자신의 이름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4. 기타

맨발동무도서관 생각

맨발동무는 어울리고 소통하는 마을의 평상이 되고자 합니다.

맨발동무가 마을을 돌보고, 마을이 맨발동무를 돌봅니다.

맨발동무 발자취

- 2005년 7월 17일 개관
- 2005년 8월 달마다 문화공연 칠방찰방 시작
- 2005년 9월 철마다 강연 시작
- 2005년 11월 부산시 북구청 사립문고 등록
- 2006년 3월 전산화 완료, 대출 반납 업무 시작
- 2006년 5월 분기별 소식지 발행 시작
- 2006년 12월 북부산세무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8년 2월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친구도서관지원사업 선정
- 2010년 10월 도서관 이전
- 2010년 11월 4일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재개관
- 2009~2011 미래포럼 만분클럽 '돌봄공동체구축관련 시범사업-어린이도서관 지원사업' 선정, 지원
- 2011년-2013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진행
- 2012년 외부 단체대출 시작
-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타 도서관



고맙습니다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아파트단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국민은행에서 후원하여 조성된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

고맙습니다 성산 글마루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주민편익시설(대우복지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간을 마포구청에 무상임대하고 마포구청과 국민은행에서 시설비를 지원하여 개관하였다. 관장과 공공근로자,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며 인건비 등 운영예산 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학교를 비롯하여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주변에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하루 1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달리도서관

여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도서관.
3명의 달리지기가 운영하고 있음

제주 도심에 위치한 달리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이자 여행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뭉친 다섯 명의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달리지기로 불리는 세 명의 운영자들이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역의 작은 문화거인을 자처 매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자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북카페는 마땅한 수익 모델 없이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작은도서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고맙습니다 성산 글마루도서관

고맙습니다 성산 글마루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주민편익시설(대우복지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간을 마포구청에 무상임대하고 마포구청과 국민은행에서 시설비를 지원하여 개관하였다. 관장과 공공근로자,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며 인건비 등 운영예산 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학교를 비롯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주변에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하루 1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위치 · 규모

서울 마포구 성산동 450
성산시영아파트 대우복지관 3층
02-373-2900
면적: 188㎡
장서 수: 11,300권
cafe.naver.com/kmarumslbook

운영현황

개관: 2011년
운영유형: 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
운영주체: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운영인원: 관장 1명과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회원 수: 4200명
일평균이용인원: 100명
운영시간
3월~10월-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6:00
11월~2월-평일 9:00~18:00, 토요일 10:00~16:00

1. 조성과정

고맙습니다 성산 글마루도서관은 성산시영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아파트 도서관이다. 2011년 12월, 아파트 단지 안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주민편익시설(대우복지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성산시영아파트는 3,710세대에 약 10,627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단지로 주변에 임대 아파트를 비롯하여 성서초교와 신북초교, 한국우진학교, 중암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월드컵 북로 버스정거장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자리하여 대중교통 환경도 편리하다.

기업 후원금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조성

2011년 4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주관하고 국민은행에서 후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공모에 '성산 글마루 도서관 사업계획'이 선정되어 1억3백만원의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구청의 보조금 1억 8천 5백만 원이 더해졌다. 2011년 5월 마포구청과 성산시영아파트입주자대표 간에 '성산시영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등 설치에 관한 무상임대차 협약'이 체결되었다. 아파트 측에서는 도서관 조성을 위해 건물 3층 전부와 2층 일부(다문화실)를 후원기업에서 리모델링(개보수) 공사와 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도서와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도서관 부지와 건물은 지역주민이 제공하고 기업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담당, 해당 구청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돼 있는 것에 비해 고맙습니다 성산 글마루 도서관은 처음부터 지역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향했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 구성에 있어 각 연령에 맞는 공간배치에 신경을 썼다. 유아들을 위한 공간은 전체 공간을 높여 다른 공간과 분리를 하여 그림책을 배치하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서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서가를 짜 넣었다. 어른들이 오가다 들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배려하였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열람실 공간을 넓히기 위해 화장실을 2층으로 모두 옮기고 천정 높이를 살려 공간이 넓어보이도록 본래의 공간미를 살렸다. 자연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도서관에 들어오면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바닥엔 온돌 마루를 깔아서 도서



탁트인 실내

관 어느 곳에서나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장서는 어린이 책과 어른 책을 65:35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2. 운영사례

성산 글마루 도서관은 유급 관장 1명과 유급 공공근로자 1명, 무급 자원봉사자 17인 체제로 운영된다. 관장이 도서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공공근로 1인이 도서관 청소와 책 정리 등을 담당하나 구 예산에 따라 인원 지원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관장과 공공근로자의 인건비는 구에서 각각 월 150만 원,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도서관의 대출 반납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개관 때부터 활동해온 이들로 도서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11인의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분기에 한 번 의결을 거쳐야할 사안을 논의한다.



1. 성인동아리
2. 전래놀이



장서는 코라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1인당 3권을 대출할 수 있고 기간은 14일이다. 연체될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연간 도서구입비로는 600만 원을 사용한다. 도서관 주 이용자는 유아를 데려오는 부모, 어린이와 함께 오는 부모, 성인 등 다양하다. 일일 평균 방문자는 약 100여 명으로 작은도서관 치고는 이용객이 많은 편에 속한다. 아이를 둔 부모들일수록 책만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매주 한 차례 이상 꾸준히 들르는 열혈 이용자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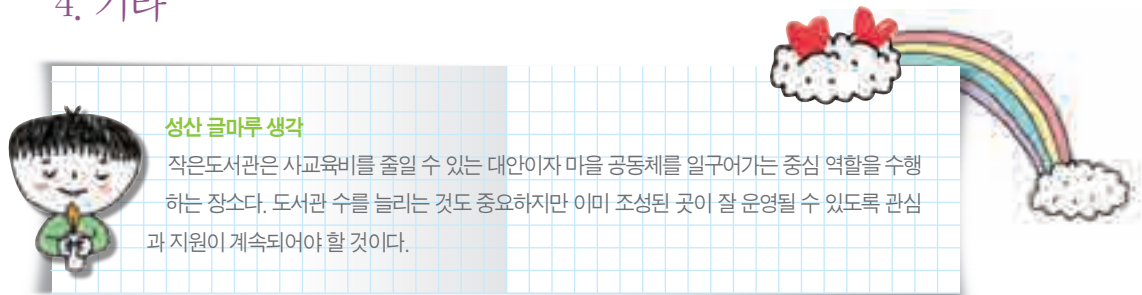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전래놀이 마당'과 '방학 독서교실', '책과 노니는 사람들' 등이 있다. 매달 1회 진행되는 '전래놀이 마당'은 전래놀이를 배우고 다양한 전래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노는 시간이다. 놀이를 잊어버린 아이들에게 놀이를 찾아주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방학 독서교실'은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책과 노니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생활 글을 함께 쓰는 성인 동아리 모임이다. 격주로 월요일 오전에 모임을 갖고 책과 관련된 나들이도 함께 떠난다. 이외

에도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로부터 2013년 1년간 ‘올망졸망책만들기’, ‘권오준작가와 놀자’, ‘책연극놀이’, ‘드림페인터’와 ‘꿈그리기’ 등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진행한 바 있다.

3. 재정마련

도서관 운영비는 마포구에서 일괄 지원하며 위탁업체인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를 통해 집행한다. 도서관 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4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별도의 일반 후원금은 모금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로부터 2013년 연간 신간도서 300권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도서관에서 연간 200만 원 지원받는다.

4. 기타



고맙습니다 성산글마루 발자취

- 2011년 12월 13일 개관
- 2012년 1월 '책 읽어주는 언니' 시작
- 2012년 2월 원어민 영어동화책 읽기
- 2012년 2월 21일 예비 초등엄마 간담회

- 2012년 2월 25일 청소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 2012년 4월 18일 도서관학교(5강)
- 2012년 5월 18일 뜯어 만드는 세상 시작/4회
- 2012년 6월 책읽는 엄마 동아리 결성
- 2012년 6월 KB경제 금융 교실 시작(11월까지 매달 1회 실시)
- 2012년 6월 28일 역사탐험연극체험활동 <박물관은 살아있다>
- 2012년 7월 청소년 책을 읽는 엄마들 동아리 시작
- 2012년 7월 24일 권윤택 작가 초청 강연
- 2012년 9월 18일 화요일에 만나는 영어동화책 시작
- 2012년 10월 20일 글마루 마을 책잔치
- 2012년 11월 1일 부모교육 강좌 / 5회
- 2012년 11월 3일 강무홍 작가초청 강연
- 2013년 1월 역사야 놀자~ 진행
- 2013년 3월 7일 이야기꾼의 책공연 <제랄다와 거인>
- 2013년 3월 올망졸망 책만들기(매달 1회 진행)
- 2013년 3월 책 낭독회(매달 1회 진행)
- 2013년 4월 자연생태놀이학교 (12차 진행)
- 2013년 5월 25일 글마루 마을 책잔치
- 2013년 5월 11일 행복한도서관재단 주관 <즐거운 책수다>촬영
- 2013년 8월 북스타트 시작
- 2013년 8월 인터뷰 다큐 제작
- 2013년 8월 입체극장 만들기
- 2013년 8월 9일 권오준 작가와 만남
- 2013년 11월 27일 동아일보 소개



달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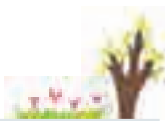
제주 도심에 위치한 달리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이자 여행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몽친 다섯 명의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달리지기로 불리는 세 명의 운영자들이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역의 작은 문화거인을 자처 매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자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북카페는 마땅한 수익 모델 없이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작은도서관의 현실 앞에서 흥미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위치 · 규모

제주시 이도2동 1017번지 2층
064-702-0236
면적: 132(㎡)
장서 수: 4,000권
www.dallibook.org

운영현황

개관: 2009년
운영유형: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운영인원: 3명
회원 수: 270명
(홈페이지 회원 수 1,272명)
일평균이용인원: 10~20명
운영시간
월~금: 오전10시~저녁8시



1. 조성과정

책에도 소리가 있을까? 달리에 가면 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달리도서관은 제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30여 분, 택시로는 20여 분 정도 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달리(Dalli)는 '달빛 아래 책 읽는 소리'라는 예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는 소리, 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의 소리, 책을 읽는 동안 흘러가는 고요한 시간의 소리를 말이다. 이외에도 달리라는 단어 속에는 달리 보고, 달리 느끼고, 달리 생각해보는 '다름'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낮엔 작은도서관, 밤엔 여행자 쉼터로

동네 어린이와 주민들이 책을 통해 풍성한 감수성을 나누는 동네 인문학 사랑방을 만들어 보겠다고 언론사 기자, 문화기획자, NGO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여자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 달리의 첫 시작이었다. 그녀들은 과거 보습학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된 뒤 비어있던 공간을 무상임대료로 내어준 '통 큰 건물주'를 만나며 씩씩하게 내달렸다. 좋은 일에는 좋은 마음이 함께 하기 마련이다. 장소 문제가 해결되자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의 기미를 보였다. 도서관시설 및 인테리어는 재능기부와 후원, 리폼과 재활용, 그리고 달리지기들의 노력으로 꾸러졌다.

1. 인테리어 작업 중인 달리지기들
2. 북카페 내부



도서관 내부 공간은 북카페 공간, 세미나룸, 낮에는 책읽는 공간, 밤에는 여행자쉼터(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는 방으로 구분되어 설계돼 있다. 개관 초기에는 여행자 위주로 운영하였고 점차 어린이, 청소년이 늘면서 책보는 장소이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으로 확장해나갔다. 책은 기증을 통해 해결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콘셉트로 밀고 나간 다른 작은도서관들과 차별화하여 달리도서관은 ‘여행하는 책’이라는 콘셉트를 잡고 홍보활동을 펼쳐 책을 기증받았다. 책을 기증받으면 서가마다 기증자의 이름을 붙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400여 명이 기증에 참여했으며 책 기증 프로젝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10월 30일 문을 연 달리 도서관은 지역의 작은 문화거인으로 통한다. 달리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동네 아이와 어른들이 모이는 동네 사랑방, 제주 여행자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과 인문학의 소통과 교감이 일어나는 복합문화공간의 다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달리를 찾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일상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책의 향기 속에서 하룻밤을 묵는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다. 이 곳은 여성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약을 통해 쉼터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다. 특별한 수익 모델이 없는 작은도서관의 구조적 단점을 극복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 운영사례

이야기가 넘치는 도서관 달리

달리지기들은 활동비 없이 자율적으로 도서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독서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소녀캠프’를 비롯하여 ‘청소년 인문학 토론모임’, 어린이대상으로 입체퍼즐로 배우는 ‘역사공부’, ‘그림자극장’, ‘언니가 읽어주는 책’ 등이 상시로 진행된다. 4050세대들의 ‘품위있게 먹고살기’를 주제로 한 재기발랄한 초청강연, 도서관 운영자로, 갤러리 여자로, 감귤밭 농사꾼으로 변신하며 사는 달리지기들의 ‘가난을 등에 업고 사는 이야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자기 분야를 일궈온 고수들이 만들어가는 생생한 강연을 열기도 한



1. 이철수작가초청강연

2. 법륜스님과 함께



다. 한라산 지킴이, 인기 블로그 운영자, 요리사, 마라톤선수, 인디밴드 기획자, 제주올레 기획자 등이 초청되었고 국내 배낭여행부터 나오시마, 인도, 네팔, 필리핀, 유럽 등지로 국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이들을 초청해 그 경험과 감동,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육지에서 작가, 화가, 평론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초청하기도 하며 ‘여행작가 입문과정’과 ‘웹으로 인문학하기’, ‘클래식이 인문학을 만날 때’ 같은 강좌부터 ‘우쿨렐레 배우기 소모임’, ‘달리랑 올레걷기 소모임’, ‘오름 가기 소모임’ 활동도 활발하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여 경험담을 나누는 달리의 초청강연은 특히 유명한데 11월 3일에는 온 가족이 남미로 여행을 다녀온 ‘뽕가루 가족’을 초청하여 생생한 남미 여행 경험담을 듣기도 했다.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 공간은 때로 출판기념회겸 북콘서트 자리로 이용되기도 한다. 11월 6일에는 박하재홍 작가의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의 출간 기념회가 열려, 작가의 생생한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1318해피존 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문화기획 캠프’를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문화기획자의 역할을 알리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자극장을 연습중인
아이들

달리도서관은 지역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구심점으로도 이용된다. 달리도서관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7월 31일까지 열린 이철수 목판화가의 제주 전시와 연계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하는 목판화체험 같은 행사가 대표적이다. 또한 작가와 함께 걷는 예술 산책길, 도슨트 프로그램, 북카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3. 재정마련

개관 직후부터 달리도서관은 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도모해왔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지만 최근에는 여행자들의 발길도 만만찮다. 달리도서관 인터넷카페에는 1,20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 모두가 잠재고객이다.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북카페에서는 4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좋은 차와 쿠키를 제공한다.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 1인 이용료는 하루 2만 원이다. 세미나실에서는 매주 독서소모임, 그룹모임, 소규모 행사 등이 열린다. 운영수입은 CMS 후원회비, 게스트룸 이용료, 북카페 입장료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비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기 후원 회원은 현재 120명 가량이다.

4. 기타

달리 발자취

- 2009년 10월19일 달리작은도서관 등록
- 2009년 10월30일 도서관 개관
- 2010년 12월 9일 임의단체 등록
- 2011년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회원가입
- 2013년 3월13일 대표자 변경 등록

